

↑ 코스피 2718.76 (+25.19)	↓ 코스닥 887.52 (-2.41)
↑ 금리 (미국 9년) 3.273 (+0.022)	↑ 환율 (원-달러) 1317.60 (+3.10)

새출발기금
약정률 높지만
정부 목표 11% 불과
08



M-커버스토리

증시 부양 등 긍정효과 ‘글썸’ 오히려 주가 변동성만 키웠다

공매도 금지 5개월

코스피 지수 일간 변동성 1.12%
금지 이전 대비 0.22%p 확대

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정책·저PBR 투자가 반등 이끌어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공매도 금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 이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위험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의 주된 이유로 증시 부양과 변동성 축소를 꼽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한 만큼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가 시작됐던 작년 11월 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코스피 지수의 일간 변동성은 1.12%다. 이는 작년 1월부터 금지 기간 이전까지의 수치에 비해 0.22%포인트 확대된 수준이다.

일간 변동성은 하루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구한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가의 오르내림이 심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일부 종목에서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며 속절없이 떨어지는 종목도 자주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 이후 이날까지 코스피는 13.23% 코스닥은 13.76% 올랐다. 특히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2020년 코스피 지수가 3000p를 돌파하는 등 상승장을 보였으나 이번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 지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초에 2400선을 위협 받은 코스피 지수는 1월17일 정부의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 반등하기 시작했다. 정부정책과 함께 단기 급등세를 보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종목 투자 열풍이 반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 대표는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된 건지

안 된 건지 체감하기가 어렵다”며 “최근 주요 국가들이 전교점을 돌파하고 분위기도 좋고 모든 지표가 나쁜 게 없는데 국내 증시만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숨어 있는 공매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애초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개별 종목 단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특정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수단에서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특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매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꺼번에 공매도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면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지만 보통 지수 움직임은 대형주가 더 이끄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주 움직임에 대해서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중소형주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과일·채소 납품단가 지원 확대

최근 채소, 과일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13개 채소, 과일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289억원으로 확대하고 4월까지 소비자 할인지원 예산도 23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농식품 비상수급 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정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채소코너 모습. /뉴시스

최근 채소, 과일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13개 채소, 과일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289억원으로 확대하고 4월까지 소비자 할인지원 예산도 23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사교육 경감’ 칼 뽑았지만 총액·참여율·시간 ‘다 늘었다’

작년 총 사교육비 27.1조... 4.5조 ↑
증가율 줄었지만 3년 연속 최고치

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p 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9년 만에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사교육 시장에 대대적으로 칼을 겨눴음에도, 사교육 총액과 참여율, 시간, 비용 등이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참여율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영역에서 상승세는 지속됐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4.5% (1조2000억원) 증가해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 (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었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이처럼 늘며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 (10.8%)의 절반 수준이지만, 상승세는 지속됐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특히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6월 수능을 넘 달 앞두고 나온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배제 조치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불안 요인이 사교육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킬러문항 배제나 공정 수능의 방향은 시간이 지나 안정되면 오히려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도 4.3%, ‘중학교’는 1.0% 올랐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p 늘어 43만4000원이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참여학생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5.5%p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78.5%로 전년 대비 0.2%p 높아졌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p 상승해 86%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도 0.5%p 높아져 66.4%를 기록했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유일하게 낮아졌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7.3시간으로 ▲초등학교 7.5시간 ▲중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7시간이다. /이현진 기자 hji@

주총 앞둔 산업계, 수장선임·배당 등 ‘표대결’

19일 고려아연 등 주총 시즌 개막 경영권·주주환원 등 빅매치 예고

국내 산업계가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과 주주환원 등을 놓고 치열한 표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0여년간 동업 관계를 맺어온 고려아연과 영풍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비롯해 ‘조카의 난’을 겪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태광산업의 경영 참여를 위해 이사 후보를 추진하겠다는 사모펀드의 움직임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19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총에서는 영풍, 고려아연의 다툼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75년간 제련 사업을 함께 한 영풍의 장가와 고려아연의 최가는 배당금을 두고 다투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으로 1주당 5000원의 결산 배

당 승인과 신규인수권 및 일반 공모 증자 정관 변경을 정했고 영풍은 이에 반대했다.

영풍은 배당금을 2022년 결산 기준 1주당 1만원으로 회복하자는 안건을 올렸고 정관 변경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영풍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신규발생 시 외국 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현재 정관을 삭제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에 영풍은 ‘배당금 원상복귀’와 정관 삭제를 반대입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설전을 펼치고 있다.

21일 주총을 개최하는 포스코홀딩스는 새로운 사령탑 선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사회가 추천한 장인화 회장 후보의 선임안에 대해 포스코홀딩스 지분 6.71%를 소유한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외유성 호화 출장’을 이유로 포스코홀딩스의 이사회 구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포스코이사의 독립성에 의구심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너가 세력 다툼도 이번 주총의 관전포인트다. 22일 주총을 예고한 금호석유화학은 행동주의펀드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은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기보유 자사주, 지분 18.4%를 소각하라는 주주 제안을 냈지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3년간 50%를 분할 소각하고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다며 일반주주 표심 잡기에 나섰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의대 찾은 이주호 부총리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 독려해달라” /사진 뉴시스
▲ 이재명, 대전서 총선 필승 결의... “패륜 정권 심판해야”

▲ 민주, 윤 정부 R&D예산 삭감에 “대전 내일 파괴”... ‘중원 민심’ 공략
▲ 민주당 부산 중·영도구 전현직 선출직, 원팀 선언



▲ 한 총리, 드론테러 등 국가 대테러활동 점검... “국민 보호 최우선” /사진 뉴시스
▲ 여 비대위, ‘이해훈 공천’ 의결에 “추가 의혹 나오면 재논의”

“실적잔치는 끝났다”... 은행권, 올해 수익 하락 예측

금감원 은행 영업실적 발표

은행 지난해 당기순이익 15% 증가
이자수익·비이자수익 모두 성장세

은행권, 1분기 실적하락 예상
불완전판매 영향 판매 신중하고
비이자이익 부문은 하락 예측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5%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은행업계에서는 올해 실적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본격적으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이슈에 대한 배상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이 21조3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15.0%) 증가했다고 '2023년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 발표를 통해 밝혔다.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했지만 이자수익과 비이자이익 모두 성장세를 보인 덕분이다.

지난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시중

〈국내은행 2022년~2023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21년	'22년 (A)	2022년				'23년p (B)	2023년				증감 (B-A)	증감률
			1Q	2Q	3Q	4Q		1Q	2Q	3Q	4Qp		
국내은행	16.9	18.5	5.6	4.2	4.2	4.5	21.3	7.0	7.0	5.4	1.9	2.8	15.0
일반은행	10.1	13.2	3.6	3.2	3.7	2.8	13.6	4.1	3.6	4.2	1.7	0.3	2.6
시중은행	8.6	11.6	3.1	2.8	3.1	2.5	11.8	3.5	3.1	3.6	1.5	0.2	1.7
지방은행	1.3	1.5	0.4	0.4	0.5	0.3	1.4	0.5	0.4	0.4	0.1	△0.1	△8.5
인터넷은행	0.18	0.08	0.03	0.02	0.06	△0.02	0.35	0.08	0.09	0.12	0.06	0.27	326.3
특수은행	6.8	5.3	2.0	1.0	0.6	1.7	7.8	2.9	3.4	1.2	0.2	2.4	46.0

/자료=금융감독원

은행 11조6000억원 ▲지방은행 1조5000억원 ▲인터넷은행 800억원 ▲특수은행 5조3000억원 등이다. 시중은행의 경우는 2022년 11조600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으며 2023년 2000억원(0.2%) 증가했다.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늘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도 순이자마진(NIM)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NIM은 1.65%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p)

올랐다. 순이자마진은 금융회사들의 수익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자산 운용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눠 산출한다. 작년 순이자마진은 상승했지만 이자이익 증가율은 전년(21.6%)보다 둔화했다.

비이자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 3조5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으로 68% 급증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판매비·

관리비는 2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1.1%) 증가했다. 급여 등 인건비는 전년 대비 5000억원 감소했지만, 임차료 등 물건비는 7000억원 증가했다. 대손비용은 10조원으로 2022년 6조4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55.6%) 증가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이 대손충당금산정 개선 등을 통한 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따라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했다고 봤다. 또한 국내은행 순이익은 대출자산 확대, 순

이자마진 개선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분위기는 작년과 사뭇 다르다. 이미 올 1분기 들어 4대 금융지주의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시중은행 실적 중 비이자수익의 수수료이익 부진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홍콩 H지수 ELS 관련 이슈로 ELS 상품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금융상품 판매를 신중히 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비이자이익 부문 실적이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자율배상으로 인해 은행 건전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의견도 있지만 금감원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권의 자율배상이 조(兆) 단위 규모로 이뤄지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題

‘고금리’ 신용대출 줄고, ‘규제완화’ 주담대는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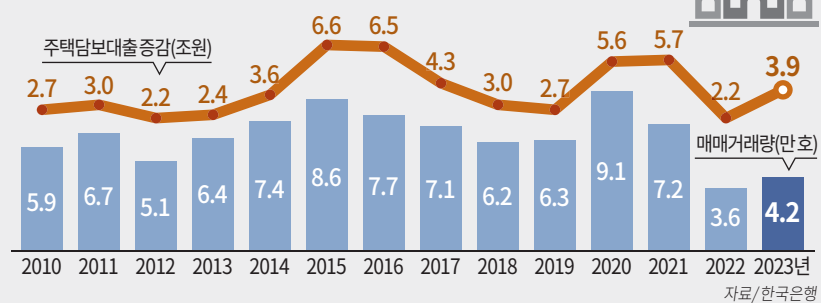
6.3만호→4.2만호 주택매매 ↓
주담대 2.7조→3.9조로 늘어나

“올 전세자금 중심 주담대 늘듯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제한적”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둔화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과거 평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완화로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자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아 자금조달한 이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6만3000호에서 2023년 4만2000호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같은 기간 2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어

주택 매매거래와 주택담보대출 증감



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담대가 늘어난 이유는 정책금융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보증금 자리론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50년 만기 등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이 완화되면서 한도가 늘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주담대가 늘어나며 신용대출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신

용대출의 경우 정책금융보다 금리가 높고, DSR규제 등의 영향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받는 이들이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신용카드 등 기타대출은 6월 -3조1000억원, 9월 -3조5000억원, 12월 -5조원 등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 중 체결된 계약물량이 금년중 만기도래하면서 전세자금을 중심으로 한 주담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의 공급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고, 신용대출 금리도 여전히 높아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데다 고금리 및 DSR 규제 등의 영향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면 ‘주춤 앞둔 산업계’서 계속

포스코인터·HD현대 등 미래먹거리 사업 추가

오는 28일 추경을 개최하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8월부터 KCGI자산운용으로부터 자사주 소각, 감사위원 선임 절차 개선 등을 요구받아 왔다.

이 외에도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추가에 나서는 기업들도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번 추중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과 각종 엔진·추진체 보조기 부품 제작·정비·판매 및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 발전용 가스터빈의 노후유를 항공엔진으로 넓혀 관련 핵심 소재 및 부품 제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 ‘먹거리’ 수소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추중에서 신사업으로 수소 사업과 탄소포집·활용·저장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도 청정 암모니아, 수소 관련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목적에 수소 및 수소화합물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HD현대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사업 목적에 넣기로 했다.

2차전지 소재를 제조·판매하는 포스코퓨처엠은 사업 목적에 2차전지 소재 ‘원료’ 제조·판매와 수출, 대형·중개업을 추가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주춤 앞두고 경영권과 주주환원 등 기업 안팎으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과도한 이익 추구나 경영개입 등으로 기업 성장을 발목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비은행권 중심 PF대출 급증... 수익성 악화 ‘주의보’

은행 잔액 44.2조, 비은행권 90.1조
연체율 0.6%→2.4% 3년만에 4배로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F대출 부실에 대응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

산 PF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분기 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44조2000억원인 반면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90조1000억원으로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2020년 0.6%에서 2023년 3분기 2.4%로 4배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PF대출이 대폭 증가했다”며 “대출 부실과 충당금 적립이 확

대되며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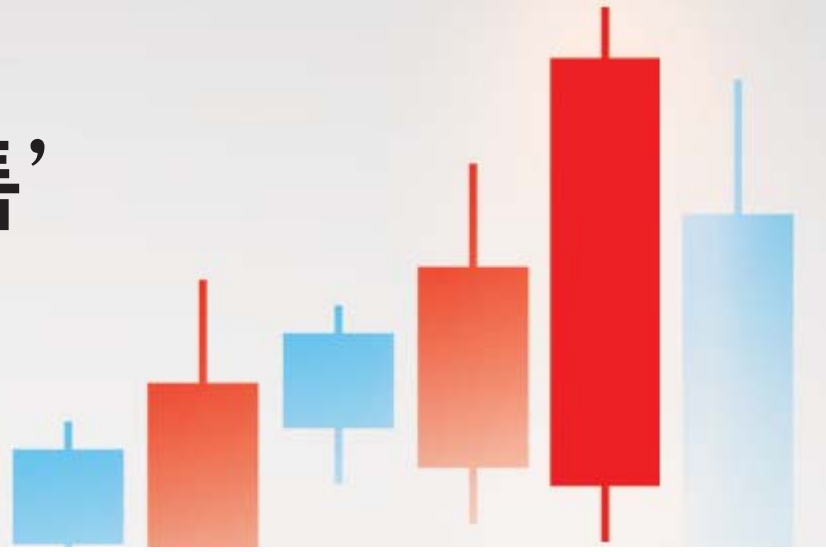
아울러 건설업 및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비은행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1.1%에서 2022년 말 1.8%, 지난해 3분기 4.2%로 올랐다. 은행이 같은 기간 0.1~0.2%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까지 이어

질 경우 비은행 권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주로 신용평점이 낮은 중·저신용자가 대출을 이용한다. 이들이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부실화, 취약차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누적된 불안요인을 경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불법 무차입 등 수기거래 ‘빈틈’ “하루속히 전산화 이뤄져야”



공매도 제도 개선

공매도 금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시장의 유동성 감소 및 기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공매도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만큼 향후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 금지조치 두고 의견 분분
개인 “불법 만연… 전면금지 해야”
투자업계 “시장 활성화 위해 필요”**

◆공매도 금지에도 주가 하락… 불법 공매도 의혹 제기

지난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자 이를 척결하겠다고 금융당국이 8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칼을 빼들었다. 공매도를 금지한 지 5개월이 흘렀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공매도 금지 제도가 반쪽짜리 제도라는 반응이다.

13일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자(LP) 시장교란 의혹, 특정 증권사 불법 공매도 논란 등 시장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LP의 공매도를 허용한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매도 중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공급자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가 잇따르고 있어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LP 공매도는 장점도 있지만 폐해가 더 크다”며 “LP가 기존 공매도 손실을 줄여주는 방패 역할과 시세조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이후 주요 국가 증시의 고공행진과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호재에도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배경엔 LP의 공매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차전지 열풍을 일으킨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도 “LP에 대해 불법 공매도 관련 의혹이 생기는 이유는 불법성과 부당성, 편파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라며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금감원은 조사를 신속하게 돌입하고 조사 진행 과정에선 MM과 LP의 공매도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차입 공매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헤지 수단이라며 LP의 공매도를 금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 부문장은 “ETF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차입 공매도는 위험 헤지를 위해 필요하며 LP의 공매도가 금지될 경우 헤지매매가 불가능해져 오히려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문장은 “당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LP 증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시스템상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적, 부적절한 공매도가 없도록 사전·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도 “과리율(순자산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이 낮은 ETF 공급을 위해선 헤지수단인 차입 공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매도 금지로 LP의 헤지 수단이 제한되고 유동성이 저하되면 상품성이 낮아진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상당히 위축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순혁 작가는 “시장조성자(MM), LP 불법성에 대해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MM, LP가 수동적으로 가격을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공매도 호가를 내놓을 때 어떤 호가에 내놓을지 협의해서 자산운용사 지시에 따라 호가를 내기 때문에 운용사가 이차

전지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호가를 더 낮게 내고 주가를 교란한다는 점을 누차 지적하고 그 부분을 조사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엇갈린 주장에 금융당국은 LP 기능을 벗어난 공매도는 당연히 불법이며,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다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기된 의혹들은 추가로 조사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전산화, 담보 비율과 상환기간 통일 필요

개인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전산화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그간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원인으로 ‘전산화 시스템의 미비’가 꼽힌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산화되지 않아 모든 거래 기록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했다. 또 기관끼리 대차거래 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실시간으로 공매도를 감시할 수 없어 오류가 발생해도 사전에 대응할 수 없다.

모든 거래 수기로 관리 실시간 감시·사전대응 어려워 “불법 근절 위해 전산화 필요”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선 일단 공매도 전산화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며 “불법이 만연한 주식시장에서 전산화가 안 되면 불법 공매도는 언제라도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무결점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 있어 담보 비율과 상환기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혁 작가는 “무차입공매도가 사라지고,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무기한 공매도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무제한 공매도 등이 사라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들에 대한 공매도 기한과 레버리지 비율은 전 세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사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인 투자자 차별 철폐가 필요하다”며 “지금 상환 기간, 담보 비율도 다르고 한 데 그것을 통일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투 업계에선 개인은 신용도가 외국인 기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차별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주식 빌릴 때 외국인 기관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은 증거금이 있는데 외국인 기관은 증거금이 없는 상황인데도 상환 기간 담보 비율까지 차별한다”며 “외국인·기관·개인 담보 비율을 130%로 통일하고 그다음에 상환 기간을 일괄적으로 90일로 적용해야 하고 90일 후 강제 상환하게 한 다음 1개월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산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은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시스템에서 부적절한 공매도 주문이 있는지 중복 체크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공매도 전산화 같은 경우 시간이나 비용들이 걸리는 등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적절한 수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수준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재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산화 시스템을 한두 달 내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다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한 만큼 공매도 이슈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이복현 금감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주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왼쪽)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오른쪽)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주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경제통’ 윤희숙 vs ‘민생통’ 전현희 … 與野 여전사 맞대결

22대 총선 격전지

중·성동구갑

강북 한강벨트 대표적 요충지
두후보 모두 지역연고는 없어
여론조사서 오차범위 내 접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중·성동구갑에서 서울 서초출로 지역구를 옮겨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중·성동구갑 여야의 공격력 좋은 여성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됐다.

중·성동구갑은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하철역으로는 응봉역, 서울숲역, 뚝섬역, 성수역, 상왕십리역, 왕십리역, 행당역, 마장역, 신답역, 답십리역, 장한평역 일대를 포함하고 있다. 아파트와 빌라촌이 밀집한 왕십리도선동과 역시 아파트 단지가 많은 행당2동에 세대가 밀집해 있다.

◆KDI 출신 경제전문가 윤희숙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다. KDI 시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바 있고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구갑 후보가 14일 서울 왕십리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윤 후보 측

(현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관심을 모았다.

윤 후보는 지난 2020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임대차 3법 반대 자유토론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연설을 해 유명하다. 또한 공공기관인으로 문재인 정부가 행한 경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구갑 후보가 13일 성동구 지역 주민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전 후보 측

정책에 대한 해설서인 ‘정책의 배신’과 국회의원으로서 느낀 혐오정치에 대한 에세이집 ‘정치의 배신’을 펴내기도 했다.

다만, 윤 후보가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마치지 못한 이유도 주목할 만하다. 국회는 지난 2021년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 윤 후보

의 부친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알려졌다.

윤 후보는 부친의 연루 사실이 당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의원직 사퇴 이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등판한다는 설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여당에 어려운 선거일 수 있는 중·성동구갑에 도전하게 됐다.

◆尹 정부와 맞붙은 권익위원장 전현희

윤 후보가 초선인 것에 반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을 거친 재선 의원이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수도권 최대 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맞선 권익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전 후보는 지역구를 옮겨 중·성동구갑에 도전한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들이 사의를 표하는데, 전 후보는 집권3년차인 2020년에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난 2023년에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전 후보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셈인데, 결국 감사원이 전 후보의 근태와 관련 감사에 착수하는 등 권익위는 한동안 논란의 진원지가 됐다. 전 후보는 이를 감사원의 표적감사라고 반발하면서 공수처에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연고가 없는 전 후보가 중·성동구갑에 잘 스며드는지가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후보는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서울 종로에 먼저 한 적이 있으며, 중·성동구갑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해놓고 있었다. 다만 계파 갈등 논란 끝에, 전 후보가 중·성동구갑에 전략공천된 바 있다.

◆세대 따라 갈리는 지지율

최근 여론조사에선 격전지 답게 윤 후보와 전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10일 서울 중·성동구갑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4.4%p, 응답률은 8.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전 후보는 42.9%, 윤 후보는 36.6%의 지지율을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했다.

둘의 지지율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 후보는 20대, 30대, 40대에서 윤 후보를 앞섰고, 윤 후보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전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50대는 전 후보가 42.5%, 윤 후보가 42.8%로 초접전 양상을 기록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사퇴했다던 오세희 소공聯 회장 이튿날까지 ‘내부 결재권’ 행사

6일 낮 신청 후 7일 오후도 ‘회장직’
본부장-상근부회장 거쳐 결재 ‘정황’
연합회 비정규직 ‘대량 해고’ 제보도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채 비례대표를 신청해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 사퇴했다는 회장이 내부 결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오 전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소공연은 회장이 사퇴 직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선 신청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결국 후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오 전 회장이 취임 후 소공연내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했다는 제보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평명될 경우 비정규직을 아우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성과 정반대의 행보를 한 오 전회장의 ‘자격론’도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소공연 내외부에 따르면 오 전회장은 지난 7일 오후 2시42분 04초에 내부망을 통해 결재를 했다. 6일 오전에 사퇴했다는 회장이 대리-팀장-본부장-상근부회장을 거쳐 자신까지 올라온 결재권을 이튿날 버젓이 행사한 것이다.

오 전 회장은 전날(6일) 낮 12시까

지었던 더불어민주당 제22대 비례대표 후보자에 신청하기위해 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소공연은 정치 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회장이 직을 내려놓은 후 비례대표를 신청해야하는 것도 법적, 도덕적으로 강한 책임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태는 그렇지 못했다.

아울러 소공연이 6일 오후 4시14분에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에 보낸 공문(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신상관련 입장발표 임원회의 참석 요청)에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세희’라는 글씨와 직인이 찍혀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오 회장은 비례대표를 신청하기 전에 사퇴를 했다”면서 “공문에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은 당일 사퇴하는 바람에 반영하지 못했다. 또 사퇴후 ‘직무대행’으로 바뀌는 것은 하루가 지난 다음날 반영되는 것이 내부 원칙”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오 전 회장이 비례대표 신청 전 사퇴했다는 증거에 대해서 “사퇴서를(비례대표 신청에)앞서 받았다”는 말로 대신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사태에 대해 소공연측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중기부는 결과에 따라 조사권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

尹 “익산-여수 고속철·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전남 무안군서 ‘스무번째 민생 토론회’
“호남, 미래 산업 전진기지 길 열어
광역경제권 형성, 교통인프라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 생활권 확장과 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해 전북 익산~전남 여수 간 철도 고속화와 영암~광주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과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순신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를 인용하며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호남은 지금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새로운 길을 열고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며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광주 송정부터 시작해서 전남 영암까지 초고속도로를 만들어 자율형 주행차의 영암 F1 경기장까지 자율형 주행차의 테스트베드로 쓰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관광과 비즈니스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꺼번에 잡는 교통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호남 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안인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라선 고속철도 속도가 느려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며 “우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기 위해 “광양항 자동화항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주요 항만 등은 이미 전 영역에서 자동화 항만을 운영한다”며 “광양항에서 추진 중인 7000억원 규모의 자동화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시키고 핵심장비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흥을 기점으로 한 우주산업 발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흥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업적 발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50여만 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면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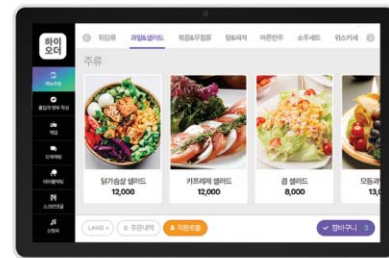
광양과 순천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이차 전지와 콘텐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무안·함평에 인공 지능(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기반 마련,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1200억원을 투입해 가공, 연구개발(R&D), 수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를 막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서해안 치어까지 썩쓸이하는 중국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바다 영토 주권을 지키고,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 불법 어구를 상시로 철거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주문접수도 결제도
 대신 받아주고
 맛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매장 경쟁력이
 더욱 올라가더군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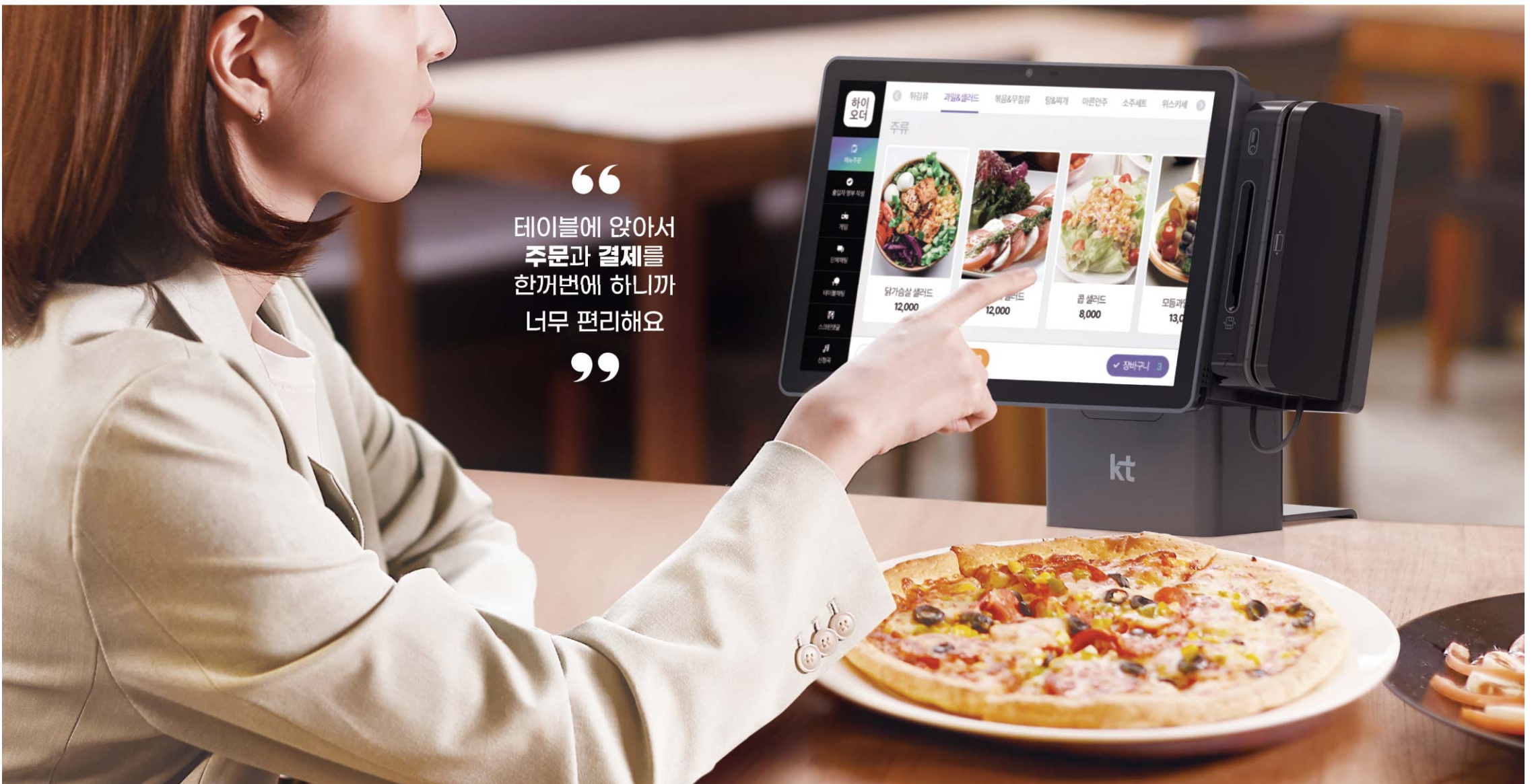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KT



하이오더

- ✓ 회전율 개선 · 운영비 절감
- ✓ 다양한 결제수단 · 외국어 지원
- ✓ 안정적인 네트워크 · 전국 직영 A/S

하이오더란?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 가능한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과 결제를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편리해요
 ”

국민의힘 공관위, 정우택 공천 취소

“도덕성 기준 못 미쳐... 서승우 후보 우선추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또 6차 경선 결과 부산 북구에서는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경기 하남에서는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이 이겼다. 경북 구미와 경기 포천가평, 대전 중구 등은 결선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정우택 후보에 대해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서승우 후보를 우선추천하는 것으로 비대위에 재의결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서 후보는 당초 충북 청주청원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김수민 전 의원에 패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충북 청주상당에서 정우택 의원과 경선을 치른 윤갑근 전 검사장을 우선추천하지 않은 데 대해 “윤갑근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른 후보를 우선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력 부분에서 확실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돈 수령 여부가 확인됐냐’는 질문에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우리의 도덕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판단) 해서 취소한 것”이라며 “범죄 여부와 돈 수수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밝히는 것이지 우리가 밝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한 카페 사장 A씨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영상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은 돈봉투를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A씨가 정 의원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과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정부부처 차관 간담회

“부담금 정비방안 신속하게 마무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 14일 윤 대통령이 지시했던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점검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최근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성 실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그간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성 실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與野 ‘2024 총선’ 유세 현장

‘낙동강 벨트’ 집결... “부산 위해 최선”

국민의힘

한동훈, 지방일정 나서 서병수·이성권 등 유세 지원 “부산서 새로운 정치 시작”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해 지역 총선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부산경남(PK) 지역의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를 찾았다. 낙동강 벨트는 보수세가 강한 편인 PK 지역 중에서도 더 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적지 않은 지역이다. 한 위원장의 부산 방문은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북구와 사하구 일대를 방문했다. 해당 지역은 모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탈환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낙동강 벨트’에 속한다.

낙동강 벨트는 PK지역의 최대 격전지로 낙동강 인근의 지역인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경남 김해, 경남 양산 등을 뜻한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꽤 높은 편이라, 일부 지역 현역의원은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국

민의힘은 중진인 서병수·조해진·김태호 의원을 낙동강 벨트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한 석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낙동강 벨트 일부 지역구를 탈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한 위원장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부산 북구의 구포 시장이었다. 구포시장은 부산 북구갑에 속하며, 해당 지역 현역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내 민주당 현역 3인 중 전재수 의원을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하고, 5선 중진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이 지역구로 보냈다. 이날 시장 방문에도 한 위원장은 서 의원과 동행했다.

시장은 한 위원장을 환영하기 위한 이들로 가득했다. 한

위원장도 이에 셀카를 찍어주고 악수를 하는 등 화답을 했다. 이어 구포시장 상인 간담회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고속철도 구축 등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안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한다”며 “저희는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지역 후보인 서병수 의원의 유능함을 강조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서 의원님은 실천과 속도로 유명한 분”이라며 “서 의원은 과거 부산시장이었고 서 의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절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구포시장 일정을 마친 한 위원장은 곧바로 사하구 괴정골 목시장으로 이동했다. 괴정골 목시장은 사하갑에 속하며, 이곳에서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연속 3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에선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이성권 후보가 나섰다. 이에 시장 방문에는 이성권 후보와 함께 옆 지역구인 사하을 조경태 의원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의 자랑 조경태와 이성권을 소개하겠다”며 “저희가 부산에 정말 잘할테니 저희를 믿고 선택해 달라. 부산을 버리지 않고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대전 등 중원 공략... “반국민세력 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 심판론 강조 R&D 예산 삭감 등 비판 “민주당 아닌 국민의 승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당 대표가 14일 오전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를 찾아 제22대 총선 대전지역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

이틀 연속 서울 동작을 찾아, 여론조사에서 고전하고 있는 당의 영입인재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한 이재명 당 대표가 14일 대전으로 내려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세종·충북 방문 일정을 잡으며 대대적인 ‘중원 공략’에 나섰다. 이해찬·김부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일제히 대전을 찾아 윤석열 정부 심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대전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

구단지가 있는 대한민국 과학의 요충지다.

이 대표는 “국가 차원의 R&D 투자는 그래서 국가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 어떻게 했다. 늘려도 부족할 판에 연구개발 예산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연구개발 예산은 줄이지 않았다”며 “마치 우리의 부모들이 보릿고개를 넘

어가면서도 자식들 교육은 시켰던 것처럼,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 늘려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연구개발 삭감에 이어 여당 중진 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과 대전 서구갑에 공천받은 국민의힘 조수연 예비후보의 과거 SNS에 일제강점기 관련 내용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함량 미달 후보들을 전국에 공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내

놓은 후보들이 딱 이렇게 느껴진다. ‘어쩔래? 내가 한다는데 너 어떡할래? 그냥 찍어라. 너네들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제시하면 따르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은 반국민세력인 국민의힘,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대결”이라며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국민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1차)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 2항에 의거 가스배관 시설을 설치하려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련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86-97, 186-102, 186-82
소유주 : 이경순, 전수정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
공고인 : 협성설비(주)
연락처 : 조규준 010-9011-9304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금융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NH농협금융은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민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언제나 농민과 서민의 든든한 금융동반자로서 손 내밀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갑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새출발기금 약정률 높지만... 30조 목표 까마득

(81%)

채무조정 신청 인원 5만4052명
조정 채무규모 2조4744억 그쳐
내년까지 30조 목표 달성 힘들듯
당국, 지원 활성화 위해 대상 확대

출범 17개월을 맞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가 5만4052명을 기록했지만 실제 채무조정액은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 약정완수율(신청자 중 채무조정을 마친 비율)이 81%에 달하지만 누적 채무조정액은 2조4744억원에 그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30조원의 채무조정을 마친다는 추진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힘들 전망이다.

14일 캠프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5만4052명이다. 채무조정을 마친 신청자는 3만3572명으로 약정완수율(신청자 중 채무조정을 마친 비율)은 약 63%다. 조정 채무규모는 2조4744억원이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채권 인수를 통한 부채 규모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코로나19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남대문시장에 방문한 시민들의 모습.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뉴시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한다.

심사 및 채무조정 약정을 진행하는데 3개월 인콰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새출발기금의 실질 약정완수율은 약 81%(2023년 12월 신청자 4만3668명 대비 약정완수율)에 달한다. 평균 채무조정 금액을 고려하면 기대 채무조정액은 약 3조2000억원이다.

81%에 달하는 높은 실질 약정완수율에도 채무조정액은 새출발기금의 출범 당시 목표인 30조원의 약 11%에 그쳤다.

새출발기금의 흥행 저조 요인으로는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9월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만기 연장과 최대 5년의 상환 유예를 시행했다.

같은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및 부실 발생 가능성이 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 발생 중단에 따라 새출발기금 수요는 크게 줄었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 2023년 9월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한 이후에도 눈에 띄는 연체율 증가는 없었다"며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부채가 연착륙 단계로 접어들어, 새출발기금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초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는 4339명으로, 지난 1월 신청자(3312명) 대비 약 31% 늘었다. 하지만 기간 확대가 코로나19 종료 이후인 2023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한 만큼 수요는 한정적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제1금융권·제2금융권으로 한정된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을 제3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제3금융권이 영업손실을 이유로 참여를 꺼려 해당 방안은 불발됐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이 금융기관의 자체 프로그램과 달리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라며 "차주 스스로도 연체 해결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녹색금융 313억 등 ESG 경영성과 공유

신한카드가 ESG 경영 성과를 공유했다.

◆상생금융·사회공헌 박차

신한카드는 '2023년 ESG 하이라이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말 마이샵 파트너의 가입 고객수가 30만명을 돌파했다. 마이샵과 트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통하는 주요 상생금융 채널이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대상으로 캐시백·경품추첨 등 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했던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 대상 대출 지원은 2조7000억원이다.

친환경 이동수단 대여 및 그린 리모델링 대출 서비스 등을 통해 녹색금융 313억원을 지원했다. 친환경소재 카드 플레이트 125만매 발급 및 실물카드없는 디지털 카드로의 전환도 강화했다.

NH협카드 상품권·전자제품 증정 고객 감사이벤트 진행

NH협카드가 상품권, 전자제품 등 경품지급 행사를 마련했다.

◆추첨통해 로보락, 퓨리케어 선물

NH협카드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학기 문화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총 1004명에게 컬처랜드 모바일 상품권(2만원)을 제공한다. 대상은 개인카드로 3월 한 달간 국내 가맹점에서 합산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이다. 이어 '교육비 자동납부 이벤트'를 준비했다. 카드자동납부 서비스 신청 및 이벤트 응모 시 GS25 모바일쿠폰(5000원)을 제공한다. 내달 말일까지 1회 이상 교육비 자동납부 내역이 있어야 한다.

전자제품도 선물한다. NH페이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로보락 로봇청소기 ▲LG 공기청정기 퓨리케어 ▲다이슨 청소기 등 경품을 지급한다.

현대카드 셀프쿠킹 첫 운영 등 3~4월 문화행사 공개

현대카드가 3~4월 문화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셀프쿠킹, 다큐멘터리 선봬

현대카드는 봄을 맞아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셀프쿠킹' 프로그램이 2024년 첫선을 보인다. '레드렌탈 치킨 수프'를 배울 수 있다. 내달 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운영한다. 아트 라이브러리에서는 에드 루샤(Ed Ruscha)의 다큐멘터리 '4 디케이즈'를 관람할 수 있다. 언더스테이지에서는 공연을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는 '김수로·위선자 탁 선생'이 열린다. 바이날엔플라ستيك에서는 '픽처 디스크(Picture Disc)'를 만나볼 수 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장기요양 수요 급증... 신한라이프, 요양사업 본격화

시니어 사업 전담 '신한라이프케어'
하남에 도시형 요양시설 건립 추진

신한라이프가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본격 운영한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양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 1월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했다. 헬스케어 자회사였던 신한큐브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변경하고 시니어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만들었다.

오는 2025년 노인요양시설 오픈을

목표로 부지 매입도 마무리했다. 경기도 하남 미사 1호점은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요양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부지는 매입한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신한라이프가 요양사업 진출에 나선 배경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꼽힌다.

특히 장기요양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연구원도 지난 2월 발표한 '주요국 장기요양시장 현황'에 따르면 특히 '가장 노년층(85세 이상)'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향후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주요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다. 2000~2019년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비중은 약 60% 증가했다.

홍보배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초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장기요양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공공 부문

의 장기요양 지출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신한라이프는 신한라이프케어의 요양 사업 연착륙에 나선다. 신한라이프케어를 바탕으로 신한금융 그룹사 간 협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물리적인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의료·헬스케어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실버타운을 조성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삼성물산, 타워피엠씨와 기존 주거단지에 '홈닉' 서비스 도입

삼성물산이 주거단지 관리운영 전문기업과 손잡고 홈플랫폼 브랜드인 '홈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장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4일 타워피엠씨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아에서 기존 주거단지에 홈닉 도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더불어 문화생활, 건강 관리 등 주거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플랫폼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 전용앱을 출시하고, 래미안 원베일리에 최초 적용해 입주민



방문객들이 '래미안 더 넥스트' 행사 현장에서 홈닉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워피엠씨는 지난 2002년 창립해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시작으로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용산 한남더힐과 지

난해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 등 지역의 랜드마크 주거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종합주거관리 서비스 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주택사업

본부장 김명석 부사장과 타워피엠씨 강민수 부회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브랜드의 기존 공동주택에도 홈닉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양사는 신규 단지 외 기존의 공동주택에도 홈닉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혁신적인 라이프 솔루션과 타워피엠씨의 단지 관리운영 노하우를 접목시키는 등 시너지를 더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서울과 부산 지역 등의 주거단지에 도입할 예정이며, 입주민의 주거 품격과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 협업을 진행해 갈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불황 터널’ 석화업계, 설비 매각하고 고부가 사업 재편

중국발 공급과잉·글로벌 경기 침체
자회사·공장매각 등 사업구조 재편
LG화학, 여수 NCC 2.6억 투자 단행
업황 불황에 공장 가동 중지 상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자회사 매각, 공장 매각을 통한 한계사업 정리, 나서는 등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등 실질적 반등 지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석화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이달 말 여수 스티렌모노머(SM)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M은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에 쓰이는 원료다.

LG화학 관계자는 “중국의 공장 증설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어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023년에도 IT 소재 사업부의 필름 사업 중편광판 및 편광판 소재 사업을 중국 업체에 매각한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여수 NCC(나프타분해설비) 2공장 증설을 포함해 2조6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했으나, 업황 불황에 따라 매각을 통한 신규 투자금 확보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LG화학 NCC 공장은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가동을 중지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 또한 지난 2023년 중국 내 범용 제품 공장을 모두 매각한 데 이어 1조5051억원에 인수했던 말레이시아 법인 ‘롯데케미칼타이탄(LC타이탄)’의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



LG화학 여수 NCC 공장 전경.

/LG화학

졌다. 이미 롯데케미칼은 LC타이탄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한 상태다.

석화업계는 사업 중단 및 축소 단행의 요인으로 중국 내 시장 변화 영향을 꼽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제조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자 기초소재 공장의 매각과 구조조정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석화업계 또한 기초소재 공장을 정리하고 스파텍스 등의 합성수지, 이차전지 소재 등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NCC 매각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동시에 이를 통한 사업 체질 변화에 나설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신성장동력 마련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발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매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석화업계는 체질 개선을 위해

적자를 감당하더라도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은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와 범용 제품에서 불순물을 걸러내 순도를 높이는 기술은 중국 대비 국내 기술이 월등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를 통해 기술력에서 우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겸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은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석유화학 기초유분 자급률이 1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내)석화기업들은 파트너십 구축이나 현지화를 통한 위기 회피 등 공급망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친환경 사업 분야와 관련된 설비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시장 입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전비·디자인 등 솔루션 공개

‘프론트 페이스 통합 모듈’ 개발
고속 주행시 공기저항 낮춰 개선

현대모비스가 전기차의 전비(전기 소비효율)를 개선하면서 디자인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전기차용 솔루션을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기존 내연차에 있는 차량 앞부분 그릴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공기 저항을 줄이고, 디자인 다양성을 확보한 ‘프론트 페이스 통합 모듈’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프론트 페이스는 램프, 그릴, 후드 등이 위치한 차량 전면부를 의미한다.

현대모비스는 이 통합 모듈에 공기 저항을 줄여 전비를 개선해주는 공력 시스템 외에도 다양한 신기술을 함께 적용했다. 디자인과 센서 보호를 위해 주행 중에만 외부로 돌출되어 작동하는 라이더, 충전 시작 단계에서 충전기를 쫓기만 하면 충전 완료 후 자동으로 충전기를 회수해주는 기능이 대표적이다.

전기차를 겨냥한 차세대 요소기술들을 융복합 적용해 성능과 디자인, 편의

성을 향상시키고, 차량 전면부를 토질 패키지로 형태로 구축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

우선 그릴과 후드 등의 일부가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시스템을 적용해 고속 주행 시 공기 저항을 낮추고 전비를 개선시킨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고 열 교환을 거친 공기 배출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냉각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공기 흐름을 제어한다. 이 융복합 공력 시스템만으로 전기차의 항속거리가 약 20km 늘어나게 된다.

전기차는 통상 라디에이터 그릴을 없애고 공기 저항 감소에 초점을 맞춘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흔히 떠올리는 승용 전기차들이 다소 획일화된 모습인 이유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을 통해 기존 그릴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공력 성능을 개선하도록 차별화했다. 여기에 LED 라이팅 등 디자인 요소를 융합해 상품성도 높였다. 승용차처럼 차량 높이를 낮추기 어려운 SUV와 CUV 전기차에 특히 유용한 기술이다.

/양성운 기자

한국타이어, 전기차용 타이어 ‘아이온’ 선보

美 ‘일렉트릭파이 엑스포’ 참가
롱비치 등 4개 지역서 부스 운영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일렉트릭파이 엑스포’에 참가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 등 기술력을 선보인다.

일렉트릭파이 엑스포는 북미 최대 전기차 박람회로 2021년 첫 개최 이후 글로벌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올랜도를 시작으로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뉴욕, 오스틴 등 미국 내 8개

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서 체험 공간 ‘데모 디스트릭트’를 후원하고 롱비치 등 주요 4개 지역 행사에서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한국타이어는 최상위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 ‘아이온(iON)’ 브랜드의 퍼포먼스 타이어 ‘아이온 에보’, 사계절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겨울용 타이어 ‘아이온 아이셉트’ 등을 선보인다. 또 전기차 레이싱 대회인 ‘ABB FIA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의 공식 전기차 레이싱 타이어를 함께 내세워 혁신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더 똑똑하게 돌아온 ‘소형 CUV 절대강자’

한국지엠, 트랙스 크로스오버

연식변경·레드라인 특별트림 추가
커넥티비티서비스 온스타 최초 적용
디지털 활성화로 쉽고 빠르게 연결



한국지엠 쉐보레가 새롭게 선보인 2025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 REDLINE.

한국지엠 쉐보레가 소형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량(CUV)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연식변경 모델 출시로 국내 시장 공략에 고삐를 친다.

쉐보레는 14일 2025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출시하고,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기존 운영 트림인 LS와 RS, 액티브(ACTIV)에 레드라인(REDLINE) 트림을 추가했다. 레드라인은 쉐보레 전 제품에 있는 특별 트림으로, 2015년 북미 최대 자동차 부품 전시회 세마쇼(SEMA Show)에서 선보인 컨셉트에 기반한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레드라인의 외관은 그릴과 그릴바, 아웃사이드 미러, 스키드 플레이트 인서트에 글로스 블랙 외장이 적용되며, 레드 스트라이프 그릴 및 아웃사이드 미러를 포함, 레드라인 전용 17인치 글로스 블랙 레드라인 알로이 휠 및 블랙 휠캡, 레드 아웃라인 블랙 트랙스 레터링, 루프랙 등 강렬한 레드 컬러와 블랙 컬러를 조

합했다. 실내도 요소 곳곳을 검은색으로 꾸며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편의 사양은 앞좌석 3단 열선시트, 열선 스티어링휠(운전대), 풀오토 에어컨, 뒷좌석 에어벤트(통풍구), 버튼 시동&스마트키, 2열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 포트(충전 전용), 러기지 보드 등을 적용했다.

2025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GM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가 최초 적용된다. 온스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차를 원격제어(시동, 잠금, 경적, 비상등)하고, 자동차 상태 정보(주행기록, 타이어 공기압, 연료량, 엔진오일수명, 연료효율) 등을 볼 수 있다. 또 자동차 진단 기능 등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국내 적용되는 온스타는 자동차와

모바일 기기를 보다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디지털 활성화(디지털 액티베이션) 기능을 GM 글로벌 시장 중 처음 도입한다. 기존에는 상담사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해야 했다면, 이 과정 없이 온스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온스타는 액티브와 RS 트림부터 기본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서비스를 시작해 2년 무상 제공된다. 2025년형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격은 LS 2188만원, 레드라인 2595만원, 액티브 2821만원, RS 2880만원이다.

한편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해 국내 소형 CUV 세그먼트 1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수출 실적을 기록한 쉐보레의 대표 모델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상용 모델로 전동화 확장 나선다

전기상용차 플랫폼인 ‘ST1’ 공개
외장 디자인, 안전성·실용성 고려

현대자동차가 14일 첫 전기상용차 플랫폼인 ‘ST1’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ST1은 사시캡(차량의 뼈대)과 승객실만으로 구성된 차량에 기반해 사용 목적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플랫폼의 명칭인 ST1은 ‘Service Type1’(서비스 타입1)의 약자로, 숫자 1은 플랫폼의 첫 번째 모델임을 의미한다.

현대차는 ST1 개발로 승용에 이어 상용 모델까지 전동화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ST1의 외장 디자인은 상용 차량인 만큼 안전성과 실용성을 고려해 완성됐다. 전면부를 보닛의 절반 정도가 캡(승객실)보다 앞으로 돌출된 형태로 디자인했다. 충돌 시 차체가 충격을 흡수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 전면 범퍼, 측면 사이드 장식, 후면 도어 테두리 등 굽힘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에 검은 색상의 보호장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적재함 용량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하 주차장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상(노면과 차밀바닥의 틈새 크기)을 낮췄다. 덕분에 작업자는 적재함에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됐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IP활용 게임·콘텐츠 제작 ‘활발’... “비용 절감·수익성 보장”

넷마블, 올 상반기 IP활용 신작 예정
신규 유저 확보·재사용 가능 장점

K-게임 해외진출 성공사례 발굴
문체부 등 IP 연계 게임제작 지원
원작 스토리 훼손 지적 목소리도

국내 게임업계가 성장동력 확보와 수익 창출을 위해 콘텐츠 확보에 속력을 내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적이다. 이를 통해 신규 이용자들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올해 상반기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나 혼자만 레벨업:아라이즈’, ‘레이븐 2’ 등 대형 신작을 내놓는다.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은 인기 드라마 IP를 활용해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준비 중인 합작 프로젝트다.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은 탄탄한 시나리오가 뒷받침된 원작 드라마로 유명하다. 또한 방대한 아스달 연대기 세계관 속에서 정치, 전쟁, 건설, 생존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아라이즈’ 대표 이미지.

/넷마블

등 실존하는 사회를 구현해 초대형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라는 점이 특징이다.

전 세계 누적 조회 수 142억회를 기록한 글로벌 인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IP로 제작 중인 액션 RPG(역할수행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아라이즈’도 상반기 기대작으로 손꼽힌다. 넷마블은 현재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 제작 위원회에도 투자해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흥행 미국 드라마인 ‘왕좌의 게임’을 기반으로 한 게임 개발에도 착

수했다.

국내 OTT업계에서 큰 흥행을 일으켰던 좀비물인 ‘킹덤’도 게임으로 출시된다. YJM게임즈는 지난 5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IP를 활용해 ‘킹덤: 왕가의 피’를 출시했다.

이렇게 게임업계가 콘텐츠 발굴에 속력을 내는 이유는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만화를 기반으로 만든 넥스 ‘바람의 나라’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가 그 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사에서 IP가 곧 재산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다. 탄탄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사들이 이를 통해 게임, 웹툰, 드라마 등을 끊임 없이 창출하는 데는 마케팅비와 초기 개발이라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익성도 보장된다. 이를 통해 기존 유저들을 안착시키고 신규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는 것도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P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PC 버전, 모바일, 크로스플랫폼, 콘솔 등 다양한 형태로의 재개발이 가능하다. IP를 타 게임사에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이처럼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법은 수없이 많다. 게임사들이 IP 개발에 총력을 다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 같은 트렌드를 인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K-게임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웹툰 IP 연계 게임 제작지원(글로벌 웹툰 게임스)’을 추진한다. 국내 게임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지난달 29일 콘진원은 전국 12개 지

역 글로벌게임센터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K-웹툰 IP를 활용한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에 총 5개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 게임기업의 사업 참여를 통해 글로벌 웹툰 IP를 보유한 네이버웹툰과 글로벌 앱마켓 플랫폼인 구글플레이와 협력해 세계적인 콘텐츠 IP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선 게임사들이 IP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에 속력을 내고 있는 상황에 원작의 기조는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IP를 활용한 웹툰 및 드라마가 원작 시나리오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면적인 요소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것. 원작의 명성에 비해 흥행하지 못한 게임을 예로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유미의 세포, 여신강림 등이 탄탄한 원작임에도 불구하고 흥행하지 못한 데에는 이용자들의 지식이 높아졌을 뿐더러 원작의 형태가 유지됐으면 하는 유저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원작의 스토리와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그만큼 게임사들의 고민도 늘어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대한항공, 엔진정비·MRO사업 역량 확충

(수리·정비·개조)

인천서 신 엔진 정비 공장 기공식
총 5780억 투입해 클러스터 구축
정비 가능 엔진 360대로 늘어나

대한항공이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 MRO(수리·정비·개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인천 영종도 운북 지구에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대한항공은 14일 오후 인천 중구 운북동 부지에서 신 엔진 정비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기공식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임직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정비 공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연면적은 14만211.73㎡다. 공사에는 총 5780억원을 투입한다.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는다. 위치는 대



14일 오후 인천 중구 운북동 부지에서 열린 대한항공 신 엔진정비공장 기공식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가운데),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시삽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이윤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뉴스

한항공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엔진 시험 시설(ETC) 바로 옆이다.

대한항공은 부천 공장에서 항공기 엔진 정비를, 영종도 운북지구 ETC에서 엔진 출고 전 최종 성능 시험을 해왔다. 운북지구 엔진 정비 클러스터에서는 항공기 엔진 정비의 시작과 마무리를 한 곳에서 소화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도

강화한다. 정비 가능한 엔진 대수가 연 100대에서 360대로 늘어나고, 다룰 수 있는 항공기 엔진 종류도 다양하다.

이번 엔진 정비 클러스터 구축으로 대한항공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항공 MRO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한항공 엔진 정비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관련 인력 고용이 총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선임 논란에 권고

“유사평판 리스크 사전 예방 등 마련”

카카오의 외부 감시 독립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카카오 경영진 선임에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준신위는 14일 “카카오 신규 경영진 선임 논란과 관련해 카카오에 유사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같은 권고는 정규돈 카카오 CTO(최고기술책임자)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정진사 새 대표 내정자는 지난달, 카카오뱅크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70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정규돈 카카오뱅크 전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카카오 CTO로 내정할 바 있다.

하지만 정규돈 내정자는 ‘떡튀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카카오가 강조한 ‘인적 쇄신’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정 내정자는 카카오뱅크 상장 직후인 2021년 8월 스톡옵션을 행사해 70억원대 차익을 거둔 바 있다. 이를 두고 내부서도 회부가 쇄신 의지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논란 인물을 선임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준신위 측은 “카카오의 새 리더십이 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권고는 지난달 20일 준신위가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등 3가지 의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한 이후 두 번째 권고다.

/구남영 기자

삼성전자, AI로 냉장고 전력절감 강화

‘비스포크 냉장고’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에너지 절감을 강화한 ‘비스포크 냉장고’ 신제품을 14일 출시한다.

2024년형 비스포크 냉장고는 전 모델에 ‘차세대 디지털 컴프레서’와 ‘AI 절약 모드’를 적용해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디지털 컴프레서는 모터 운전 시 관성 이용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에너지를 절감하면서도 성능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이 차세대 디지털 컴프레서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해 주는 평생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싱스 기반 AI 절약 모드를 더욱 강화했다. 냉장고가 사용량을 예측하고 조절하는 기능으로 2단계에 걸쳐 맞춤 절전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실사용 기준 최대 23%까지 절감할 수 있다.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 모델에는 식재료를 관리할 수 있는 ‘AI 비전 인사이트’ 기능도 탑재했다.

이는 냉장고 선반에 넣고 빼는 식재료, 도어 쪽에 보관하는 식재료를 내부 탑재 카메라로 촬영하고 종류를 인식해 푸드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비전 AI와 온디바이스 AI 기술 기반으로 신선 식품 33종을 분류하고 매칭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두산로보틱스, 복강경 수술보조솔루션 활용 ‘성공’

(주)이룸-부산대 진상록 교수팀 개발

두산로보틱스가 협동로봇을 활용한 복강경 수술에 성공하면서 의료현상 상용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대구 구병원에서 진행된 담낭 절제 수술에 복강경 수술보조 솔루션이 투입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은 10mm 내시경 카메라를 배꼽을 통해 복강에 삽입

한 후 수술도구를 조작하며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피부를 약 1cm 정도 절개해 수술도구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관침을 삽입하고, 3~4개의 절개 부위로 외부에서 몸 안을 관찰할 수 있는 영상장치와 도구를 투입해 수술을 진행한다.

이번에 활용된 복강경 수술보조 솔루션은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전문 SI 기업 (주)이룸과 부산대 기계공학과 진상록 교수팀이 공

동개발한 것으로, 협동로봇에 내시경 카메라가 탑재돼 있다.

이 솔루션은 3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고, 협동로봇 6개의 각 축에 조인트 토크 센서를 탑재해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

기존에 2~3명의 수술 보조인력이 장시간 내시경 카메라를 들고 있어야 하는 힘든 작업을 협동로봇이 대신함으로써 의료현장의 노동 강도를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등록:** <https://onoffmix.com/event/293926>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 **문의:** 오가노이드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주최: metro경제

후원: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VP Tea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Prof 강연2: Ryuichi Okamoto Prof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임승원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토스증권 “리테일 1위 목표… 해외채권·파생상품 서비스 확대”

3년만에 당기순이익 15억 흑자
수수료 뿐 아니라 만족도 높일 것
“올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목표”

“3년 만에 당기순이익 15억원으로 흑자 전환을 한 데다, 올 1분기도 아주 의미있는 호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연 토스증권 대표는 서비스 출시 3주년을 기념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통해 리테일 부문에서 1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익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개인고객 거래 부문에 있어서 수수료 뿐 아니라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도 1위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WTS, 해외채권, 파생상품 등 서비스 강화

토스증권은 올해 상품·채널 서비스를 모두 확대해 기존 국내 및 해외주식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설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PC기반의 거래 시스템인 ‘웹 트레이딩 시스템(WTS)’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내놓는다. WTS는 토스 앱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실행이 가능하며 기존 모바일 기반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과의 연동을 통해 두 개 채널에서 각각 탐색 경험과 정보가 손쉽게 연결된다.

더불어 미국 주식 거래서비스를 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토스증권 기자간담회에서 김승연 토스증권 대표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탕으로 미국 우량 회사채까지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개인(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회사채에 투자하고 싶더라도 종목·최소 투자 단위 등의 제한으로 직접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미국 회사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부 증권사에서 제한된 종목 안에서 투자가 가능하며, 이마저도 수천만원의 호가하는 최소 투자금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스증권은 투자 단위를 고객 친화적인 눈높이에 맞추고, 거래 편의성을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 파생상품을 출시해 투자 선택지를 넓혀준다고 강조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증시 상승기와 하락기 모두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적은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신규 투자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 또한 준비 중이다.

◆3년 만에 첫 연간 흑자 기록… 올해도 수익성·성장성 개선될 것

토스증권은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3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했다. 지난해 동안에만 약 100만명의 고객을 신규 유치해 올 3월 기준 580만 고객을 유치했으며 매달 토스증권을 찾는 고객(MAU)도 300만명 이상이다.

김 대표는 “올 1분기에 지난 한 해 당기순이익의 2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토스증권은 증권사로서의 수익성을 증명했다면 올해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해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스증권의 지난해 연간 기준 국내외주식 거래 수수료 기반 당기순이익은 15억3100만원으로, 1분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KB증권, 국제 수준 안전·보건 체계 도입

국제표준화기구 ‘ISO45001’ 획득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방침

KB증권은 공신력 있는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ISO45001’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공인하는 자격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국가 및 기업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세워진 기관으로 스위스에 본부가 있으며, ‘ISO45001’은 품질·환경·기술·시스템 등의 안전보건관리 분야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KB증권은 ESG경영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서 보다 객관적인 사회적 지표 기준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한층 더 발전하고자, 소셜 분야 세계적 권위의 ‘ISO45001’ 인증을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전사의 안전·보건 관련 현황과 개선점 도출 및 관련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보완하며 꼼꼼하게 인증에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했고, 심사 과정을 거쳐 ‘ISO’에서 공인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KB증권은 이번 ‘ISO45001’ 인증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들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건리스크의 정량적 평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요건 및 요구사항을



지난 11일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오른쪽)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인 저먼 서트인증원의 안상현 대표이사(왼쪽)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 획득을 기념해 KB증권 본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KB증권은 국내의 협력회사,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의 상생(相生) 경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작년에는 협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경영 동향 및 트렌드 대한 강의를 통해 환경·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고, KB증권 본사의 방향성과 연계되는 해외 현지법인 ESG경영 방침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 등의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의 경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미래인재 육성 ‘DREAM’ 장학금 지원

거래소, 청소년·대학생 적극 지원
최대 2년동안 800만원 장학금 등
봉사활동·인재육성프로그램 참여

한국거래소가 자라는 미래인재들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거래소는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취약계층 탁구 꿈나무 지원, ‘KRX DREAM 대학 장학생’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진행됐던 ‘2024년도 KRX DREAM 대학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은 장학생들의 자긍심과 건강한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규 선발된(부산·서울 40명) 장학생들이 참석했다.

‘대학생 장학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5명 대학생들을 선발해 약 17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최대 2년 동안 총 800만원의 장학금 지원과 함께 비전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등 다양한 인재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지역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KRX 드림나래’ 후원금 3억원을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KRX 드림나래’ 사업은 2022년부터 충분한 준비 없이 자립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5년간 최대 3200만원의 자기개발비, 생활안정 자금과 자립교육, 진로 및 금융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보호종료를 앞둔 고등학생 3학년 10명을 선발해 발대식 및 드림나래 1~3기(30명) 연합 자립캠프를 실시했다.

거래소 측은 “앞으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꿈의 날개를 활짝 펼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탁구 국가대표인 임종훈 선수(KRX탁구단)도 취약계층 탁구 꿈나무들을 지원하고자 성금 1000만원을 KRX국민행복재단에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초·중·고 탁구선수를 위한 장학금과 장비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신하은 기자

신한증권, 원화표시 롯데캐피탈 채권 특판

표면금리 1.677% 연 4회 이자 지급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증권을 통한 원화표시 롯데캐피탈 채권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판 대상 채권은 롯데캐피탈이

2020년 3월 13일에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등급은 A+(한신정, 기준일 23.12.26)이며 2025년 3월 13일 만기이다. 해당 채권은 표면금리 1.677%로 연 4회 이자를 지급한다. 매수수익률은 연 4.6%대(3월 14일 기준)이다.

최근 발행되는 동일 종목 채권에 비해 낮은 표면금리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객의 과표금액을 낮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채권은 액면 1000원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단, 판매되는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자산가격 변동, 신용 위험 등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신하은 기자

“외국 금융사 사칭, 불법 투자 주의”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투자 전 제도권 금융사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이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외국 금융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하라며 1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회사인 S사를 사칭해 외화 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으로 국내 펀드 대비 안정적인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들 불법 업자는 직접적인 투자권 유 없이 교묘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포털 사이트(블로그·지식인·카페)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 홍보 영상이나 광고성 글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유명 금융·재테크 관련 채널로 오인할 정도로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어 불법에 활용했다. 노출되는 썸네일(thumbnail) 이미지에는 유명 유튜버 사진을 도용해 해당 유튜버가 직접 만든 영상처럼 위장했고, 영상에 불법업자의 영상을 끼워 넣는 식이다.

실례로 20대 피해자 A씨는 올해 1월 경제·재테크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연금형 달러 투자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영상을 본 후 해당 제품에 관심이 생겼다. A씨는 포털에서 연금형 달러 펀드를 검색했고, 그 결과 S사가 국내에 연금형 달러 펀드를 출시했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글을 접한 뒤 투자를 결심했다.

최소 월 2.0~2.8%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달러 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한 것이다.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돼 있었지만, 블로그에서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읽었기에 의심 없이 입금했다. 이후 A씨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임을 알게 됐지만 거절당했다.

금감원은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불법금융투자업자이며 약정기간 후에는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 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고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美 상호교환성 인증 삭제 맨 韓 기업 시장진출 늘어날 것”

美 ‘상호교환성 제도’ 삭제 추진
바이오시밀러 ‘교체처방’ 줄어들 듯
삼바 ‘바이우비즈’ 첫 인정받아
셀트리온 ‘상호교환성’에 주력



삼성바이오페스의 안과 질환 치료제 ‘바이우비즈’ /삼성바이오페스.

미국 정부가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 제도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미국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총 7조3000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정부 예산 요구안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예산 요구안에서 미국 복지부는 향후 10년간 2600억 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약가 인하 및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 제도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 제도는 미국에만 있는 제도로,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와 별도로 존재한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난 2018년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계획과 2019년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에 대한 지침을 실행하면서

의사 처방 없이도 약사가 임의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체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처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미국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을 획득한 제품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바이오협회도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은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차이가 없으나 인식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 의료 현장에서 의사나 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 때 ‘상호교환성’으로 지정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복지부는 공중보건서비스법의 섹션 351 조항을 개정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허가된 모든 바이오시밀러가 상호교환성 지정 없이 오리지널의약품에 대체해 처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49개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식품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10개가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을 획득했다.

국내 기업 제품으로는 삼성바이오페스의 ‘바이우비즈’가 처음으로 지난 2023년 10월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았다. ‘바이우비즈’는 안과 질환 치료제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로, 앞서 지난 2021년 9월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했다.

삼성바이오페스는 최근에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 피부과 학회 연례 학술대회’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상호교환성 확인’을 위한 SB5 임상 4상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바이오페스의 SB5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지난 2023년 7월부터 미국에서 출시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강자 셀트리온도 상호교환성에 주력해 왔다.

셀트리온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에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특히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로 허가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승인 시 오리지널 제품과 대체 처방으로 빠른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상호교환성 지정이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졌다”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교환성 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임상시험과 인증 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절차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경우 국내 기업들은 다른 연구개발 활동이나 시장 확대 전략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가격 경쟁력이나 마케팅 등 새로운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대동그룹, 북미법인 임원인사 법인장에 박준식 부사장

대동그룹 계열 대동이 북미 중대형 트랙터 확대와 농업 솔루션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북미법인 주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대동은 북미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대형 트랙터(60마력 이상) 및 GME(농업 및 조경용 장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농업·농기계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동 커스터머비즈(Customer Biz) 부문장인 박준식 부사장(사진)을 북미 법인장으로, 대동 사업혁신부문 부문장인 윤치환 전무를 북미법인 경영총괄로 각각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준식 부사장은 영국 브리티시 텔레콤 동아시아총괄 이사, KT G&E 부문 글로벌사업본부장을 거쳐 대동에 합류해 2022년 국내외 영업을 총괄하는 C/Biz 부문장을 맡아 풍부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호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 공략해 해외 성장을 이끌고 있다.

윤치환 전무는 현대모비스 이중동 법인장, 현대캐피탈 해외사업관리실장, 유럽법인장, 미국 OEM Partnership 대표를 역임한 글로벌 사업과 경영 혁신 전문가로 지난해 말 대동에 합류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택배상품 간선운송에 ‘자율주행’ 도입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와 협력
인천장차장센터~옥천터미널 구간
이달 말부터 1년간 시범사업 진행

CJ대한통운이 택배상품 간선운송에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며 물류자동화 영역을 확대한다.

CJ대한통운은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와 협력해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택배 간선차량 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택배상품을 실은 11톤 대형트럭이 CJ대한통운 인천장차

장센터에서 옥천허브터미널까지 218km의 간선노선을 주 6회 운행한다. 3월 말부터 약 1년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완성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천~옥천 간선노선은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차례로 통과하며, 고속도로 비중이 운행거리의 약 93%를 차지한다. 이 구간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트럭은 도심 구간은 수동으로 주행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전환된다. 운전자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탑승하며 필요

시 수동 주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CJ대한통운은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단계별 자율주행 성능 검증을 마쳤다. 2022년에는 단원 서브터미널에서 곤지암 허브터미널까지 약 60km 구간을 4회, 2023년에는 군포 서브터미널에서 대전 허브터미널까지 약 258km 구간을 실제 화물을 싣고 6회 운행하며 주야간, 우천, 터널 등 다양한 운행조건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테스트도 진행했다.

CJ대한통운은 자율주행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업무강도는 낮추고 안전성은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말 자율주행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성능과 안전성이 인증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마련됐다.

CJ대한통운은 마스오토와의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적용 노선과 투입 차량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항만 내 무인셔틀, 터미널 도크 무인 접안 등 자율주행 기반의 물류자동화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소기업중앙회는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14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고 있다. /중기중앙회

영남서도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목소리

중기중앙회, 53개 단체 참여 결의대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들의 발걸음이 영남권까지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14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60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울산중소기업협회 허현도 회장은 “영남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낮잠은 20분 미만, 규칙적 생활 하세요”

시몬스 ‘숙면 꿀팁’ 공개

시몬스가 ‘세계 수면의 날’(3월15일)을 맞아 수면 건강을 위한 ‘숙면 꿀팁’을 공개했다.

14일 시몬스에 따르면 수면의 날을 맞아 제안하는 첫 번째 숙면 꿀팁은 ‘낮잠은 20분 미만으로,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규칙적인 생활’이다. 낮에 피곤하다고 오래 낮잠을 잘 경우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20분 이내로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이 좋다. 또한 주말이라고 늦게 잠자리에 들거나 아침에 늦잠을 자게 되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져 불면증, 수면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18(도)50(퍼센트)’에 맞춘 최적의 수면환경 조성’이다.

대표적으로 적정 수면 온도(18~21℃)와 습도(50% 이상) 유지가 꼽힌다. 뿐만 아니라 취침 전 강한 빛은 수면에

필요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취침 1~2시간 전부터는 빛 노출을 줄이고,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꼭 맞는 매트리스 선택’이다. 매트리스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몸에 맞는 생활밀착형 제품인 만큼 나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몬스 침대는 핵심 기술인 ‘포켓스프링’을 통해 개별지대로 신체를 지지하며 약 0.3kg의 미세한 중량 변화나 0.0001m/s² 의 작은 움직임에도 유연하고 기민하게 반응한다.

시몬스 R&D/품질혁신센터 권오진 상무는 “시몬스 침대는 개개인의 체형과 취향에 맞는 고품질의 침대를 생산하며 편안함을 선사하는 것을 넘어 철저한 인증 등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도 살뜰히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링크웨어 아이나비 포인트몰 오픈

링크웨어가 ‘아이나비 포인트몰’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14일 링크웨어에 따르면 새로 연 포인트몰은 ‘아이나비 커넥티드 프로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나비 리워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이다. 포인트몰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으로는 아이나비 커넥티드 프로 플러스 연장권,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 차량용 공기청정기, 액션캠 등이 있다.

해당 포인트몰에서 사용 가능한 ‘아이나비 리워드 포인트’는 아이나비 프리미엄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커넥티드 프로 플러스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주행 거리, 커넥티드 서비스 요금제, 안전 운전 점수를 고려해 각 운행별로 지급하는 포인트이다. 해당 포인트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선거리 100m 또는 주행 시간 1분을 초과하면 포인트가 지급되며 주행 별로 최대 200km, 월 최대 36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건설노조 '거래중단 강요' 발각... 과징금 4300만원 처분

공정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부과
건설기계 임대료·지급기일 결정 등
조합원 간 이익 추구... 경쟁 제한
지역 내 높은 시장점유율로 '갑질'



건설노조 소속 부산·울산·경남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이 지난 2022년 파업에 돌입해 부산 남구 신산대 부두 인근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울산지역 레미콘·펌프카 등 절반 이상을 보유한 건설분야사업자단체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시장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4일 구성사업자와 건설사업자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받는 혐의는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 기일을 결정한 행위',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 '건설사

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 임대료를 결정하고, 하루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1.5배로 결정하는 한편,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같은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과 거래조건에 의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 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배분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는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하기도 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이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 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기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은 울산 내 영업용의 전부, 콘크리트 펌프(펌프카)는 약 50%를 보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주로 조합원들의 건설기계 운영을 금지시켜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인 이른바 '작업거부', '배차금지' 등으로 건설사 등을 압박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이 제조 후 60~90분 내에 타설되지 못하면 굳어 사용될 수 없게 되는 점, 이로 인해 공사가 지체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울산 내 영업용 레미콘의 전부, 펌프카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기계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올 수출바우처 사업규모 561억 '역대최대'

산업부, 코트라와 멘토링 등 진행
전년 대비 34% 대폭 확대한 규모
대상 기업, 779개사 → 1100여개사



지난달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가 감소한 307억 달러, 수입은 19.2%가 줄어든 320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이달 12억3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데 이어 연간 누계는 9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관세청은 지난 21일 밝혔다. 비가 내린 이날 부산 남구 신산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올해 수출바우처 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올해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대상 바우처 활용 세미나, 상담회, 1대1 수출바우처 멘토링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기업들의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해외 영업지원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이다.

바우처 참여 기업들은 지난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20%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중소·중견기업(6.3% ↑) 대비 높은 수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강화를 지원한다.

올해 바우처 발급 규모는 561억원으로 전년(419억원) 대비 34% 대폭 확대

해 역대 최대 규모다. 바우처 활용 중소·중견기업도 전년 779개사에서 올해 1100여개사로 확대한다.

또 참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전문위원이 1대 1 멘토링을 지원하고, 친환경, 공급망 분야에 대응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 등 해외인증 지원 범위를 600개로 확대한다. 흥해 리스크 등에 대응해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상반기 모집 후 발생하는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선정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모집한다.

이밖에 ▲수행기관 서비스 가격 정보 확대 공개 ▲수행기관 진입기준 완화 ▲이중가격 운영 방지 감독 강화 ▲바우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해 건전한 시장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해 민·관이 수출 총력전을 다하는 상황에서 수출바우처는 기업의 수출 단계별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수출바우처가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안덕근 "석유·LPG 가격안정화에 '총력'"

(산업부 장관)

현장방문해 "상생정신 발휘" 강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방문해 일선 현장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러·우 사태,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1600원대, 1500원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안 장관은 이날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가격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유가의 국내가격 반영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 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 중이다. 불법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만남의광장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특별점검도 진행되고 있다.

LPG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기존 3%에서 0%로 인하했으며, LPG 업계도 정부 노력에 발맞춰 국제 LPG 가격 상승에도 지난 4개월 간 국내 LPG 공급가격을 동결하는 등 국민 물가부담 완화에 동참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기금 예산 233억으로 상향

근로복지기금, 전년비 21.4% 늘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금 예산이 올해 대폭 상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15일 시행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각각 2015년,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도 지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 범위 내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전년 192억원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도 감안했다.

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은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에서 10년 사이 34.1%까지 내려갔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

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게 골자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등이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 일정

A반 : 2024년 4월 1, 8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9시 (2일간)
B반 : 2024년 4월 11, 18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2일간)

교육 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 목표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수강 혜택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고급홍삼세트** 증정

수강 방법

1. **대한홍삼 홈페이지 > 상담신청**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2. **문자 or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전송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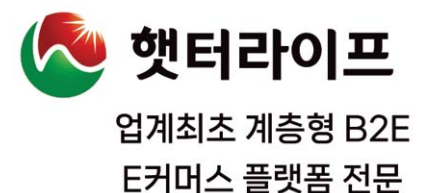
==> 법인폰 : 010-4480-0045 / E-mail : haettercs@naver.com

교육 주관



교육 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교육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9번 출구에서 600m

교육 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010-4480-004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국립대 11곳, 3년간 징계위에 총 242건 회부

중징계 31% 그쳐... “적절처분 필요”

중징계 중 정직 46건으로 최다
징계사유, 음주운전 총 38건
학교별로 결과도 제각각 달라

〈국립대 11곳 징계위원회 처분 결과 현황〉

	중징계			경징계		기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보류 등
강원대		1	1	3	5	12
경북대		2	6	6	6	19
경상국립대	1	3	5	1	8	5
부산대	2		3	3	12	9
서울대	6	2	8	7	3	
인천대	1	1	1		1	
전남대		3	6	4	1	
전북대		2	5	9	11	9
제주대		2	2	2	5	9
충남대		4	7	1	3	11
충북대			2			1
합계	10	20	46	36	55	75

/강득구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2021~2023년) 국립대 11개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42건에 대한 조치 결과, 중징계 처분은 3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음주운전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교수 38명 중 12건은 감봉에 그치고, 한명은 처분이 보류되기도 해 적절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인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국립대 1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징계위원회에 총 242건이 회부됐다.

국립대 11곳 분석 결과 2021년 총 64건이었던 징계위 회부 건수는 2022년 93건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았으며, 2023년에도 85건으로 징계회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교별로는 경북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 36건 ▲부산대

29건 ▲서울대 26건 순이었다. 반면, 징계 결과 중징계 비율은 31.4%(76건)에 그쳤다. 중징계 중에서 정직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면 10건 ▲해임 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수는 총 38건이었다. 2021년 8건에서 ▲2022년 16건 ▲2023년 1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결과는 ▲정직 25건 ▲감봉 12건 ▲보류 1건이었다.

학교별로 결과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의 경우 총 4건 중 3건이 경징계 ‘감봉1월’ 처분한 반면, 전남대의 경우 총 7건 중 6건이 중징계 ‘정직’ 처분을 내렸다.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학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국립대 교원에게는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징계 사유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 운영 모습.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역에 AI 통역시스템 설치

11개역서 동시대화 가능

외국인 관광객과 지하철역 직원이 디스플레이를 마주 보고 자국어로 대화한 내용이 자동으로 통역돼 스크린에 표출되는 AI 통역 시스템이 서울 지하철역에 확대 설치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11개 역에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은 1호선 종로5가역, 2호선 시청역·홍대입구역·을지

로입구역·강남역, 3호선 경복궁역, 4호선 명동역, 5호선 광화문역·김포공항역, 6호선 이태원역·공덕역에 마련된다.

동시 대화가 가능한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러시아어, 한국어 총 13개다.

이외에 지하철 노선도 기반의 경로 검색, 환승 및 소요 시간 정보와 요금 안내, 유인 물품 보관함(T-Luggage) 현황 등 부가 서비스도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hjk@

서울시, AI·로봇 기술개발에 367억 투자

대표 유니콘기업 육성 박차

서울시는 올해 인공지능·로봇 등 신성장 산업의 대표 유니콘(거대 신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367억 원을 투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서울형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 개발, 실증, 시장 진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예산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성장 산업(바이오·의료, AI, 로봇, 핀테크, 창조산업, 첨단제조, 양자) 기술 사업화(183억원) ▲혁신 기술 보유 초기 기업

발굴·지원(18억원)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혁신 제품·서비스 실증(90억원)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 R&D’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그간 1년 단위로 지원이 결정돼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웠던 연구개발 예산을 최장 4년간 지급하고, 지원금 한도도 기업당 최대 2억원에서 8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이나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난독·경계선지능 지원 강화

전문지원 기관, 42곳 → 55곳 확대
학교 찾아가는 서비스 11곳 → 31곳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으로 적용

#오빠 집을 찾은 A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조카에게 책을 읽어주다 고개를 가웃했다. 한 페이지씩 돌아가며 책을 읽는 과정에서 조카가 발음을 자꾸 틀리고, 줄거리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틀리더라도 문자는 읽을 줄 알았는데, 읽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줄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국민대 ERID센터는 서울시교육청 난독·경계선 지능 전문지원기관 중 한 곳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을 돕고 있다. /국민대

서울시교육청이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2월말까지 공모절차를 통해 55개의 난독·경계선 지능 전문지원기관 선정을 마치고 15일 각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난독·경계선 지능 중재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2곳이던 기관 수를 30% 확대해 올해 55개 기관에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난독 지원 기관은 19곳에서 26곳으로, 경계선지능 지원 기관은 23곳에서 29곳으로 확대된다.

전문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3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협약 기관인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와도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 관계를 돈독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각 학교는 신학기 3월 한 달 동안 다층적 진단 활동을 하고, 학습지원대상 학생 중 난독증 또는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면 교육지원청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로 심층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로 연계된 학생은 모두 심층진단을 받게 되고, 진단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 맞춤형 전문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난독·경계선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지원 수요를 파악해 신속한 진단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매칭 및 학생 성장을 관리하고, 전문지원기관은 교육청이 의뢰한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해

학생 맞춤형 중재 지원, 학부모 및 교사 상담 등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학생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중재 지원 프로그램은 개별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된다. 난독의 경우, 해독과 읽기 유창성 향상을 목표로 ▲해독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력 향상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제공된다.

경계선지능의 경우, 기초학습능력 과 사회적 향상을 목표로 ▲주의집중 ▲사고력향상 ▲사회성 발달 등의 기초 인지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독과 경계선 지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 주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3600억 투자

(5년간)

가평·양평 등 6개 시군 대상

경기도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북·동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5년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비 총 3600억 원을 투자한다.

도는 오는 4월 말까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시군(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컨설팅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10월까지 ‘제3차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4)보다 422억 원 증가한 경기북부·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계했다.

이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계획으로 도는 1분기 중 대상지역 시군 지원을 위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시군·전문가 협업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 시군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경기도청 전경

으로, 경기북부·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동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 및 각 시군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비 3178억 원 규모로 현재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에서 3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논스카치 위스키 뜬다... 제임슨, 시장 흐름 주도할 것”

서울 홍대에 ‘제임슨 마당’ 팝업

내부공간 ‘제임슨바’ 콘셉트 꾸며 2층 스테이지서 DJ퍼포먼스 펼쳐 전문 바텐더, 매일 ‘카테일 클래스’ 베이커리 브랜드 ‘라라브레드’ 협업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대표 아이리시 위스키 제임슨이 팝업스토어 ‘제임슨 마당 위드 제임슨 디스틸러리 온 투어’를 서울 마포구 홍대 ‘제임슨 마당’에 오픈한다. 최근 한국 시장에서 제임슨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와 마케팅을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제임슨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대세 위스키 브랜드의 입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직접 오감으로 브랜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 주류 팝업스토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14일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열린 미디어간담회에서 프란츠 호튼 페르노



프란츠 호튼(왼쪽)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가 14일 서울 마포구 ‘제임슨 마당 in 홍대’에서 열린 프레스테이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리카 코리아 대표는 “기존에 스카치 위스키가 강세였던 한국 시장에서 최근 논스카치가 떠오르고 있다”며 “제임슨을 앞세워 시장 흐름을 주도할 것이며,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 젊음의 거리 홍대거리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임슨은바(BAR)의 경험을 인상 깊게 전달하기 위해 MZ세대의 즐거움을 극대화한다. 내부 전체 공간은 ‘제임슨

바’를 콘셉트로 트렌디하게 꾸몄다. 2층에 마련된 스테이지에서는 콘서트와 DJ 퍼포먼스, 밴드 공연을 개최한다. 매주 목, 금, 토요일은 ‘제임슨 스테이지’를 통해 각 주차별 라이브 버스킹, 밴드, 뮤지컬, 힙합 공연을 펼친다. 랩 퍼 ‘블라세’, 가수 ‘문수진’부터 어쿠스틱 밴드 ‘오티비’, 인디 록 밴드 ‘봉제인간’ 등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가수 크러쉬가 프레스테이에 참석해 포즈 취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제임슨이 들어간 하이볼은 물론, 보틀 세트도 구매할 수 있다. 제임슨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위해 함께 페어링할 수 있도록 베이커리 브랜드 ‘라라브레드’와 협업했다.

제임슨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 앰버서더와 바텐더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제임슨 증류소를 그대로 구현한 ‘제임슨 디스틸러

리 온 투어’에서는 위스키의 재료가 되는 몰트를 직접 만져보고 위스키 숙성 단계에 따른 색과 향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

전문 바텐더에게 직접 칵테일을 만드는 법을 배우보는 클래스도 매일 열린다. 집에서 제임슨으로 누구나 맛있는 칵테일과 하이볼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매주 금, 토요일에는 대한민국 대표 바텐더와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브랜드 앰버서더들이 함께하는 ‘게스트 바텐딩’이 열리며 이밖에도 인플루언서, 유튜브 등이 직접 바텐더가 되어 고객을 만나는 ‘일일 바텐더 데이’를 운영한다.

제임슨 마당 팝업스토어는 19세 이상의 법적 음주 허용 소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은 무료다. 디스틸러리 투어와 칵테일 클래스 등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및 현장 예약하면 된다.

한편,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모던 스피릿 제임슨은 최상의 맥아와 몰트로 완성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오뚜기 딸기잼, 트렌드 반영 진화로 ‘롱런’

국내 첫 과육원형 살린 ‘프리저브’ 건강중시 소비자 겨냥 저당제품 출시

1985년 8월 딸기잼을 출시한 오뚜기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다변화하고 있다.

14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잼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412억원(금액 기준)으로, 이 중 딸기잼 시장 규모는 327억원 수준이다. 전체 잼 시장에서 딸기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7%(판매 중량 기준)에 이른다.

오뚜기는 국내 최초로 과육의 원형을 살린 프리저브 딸기잼을 출시했으며, 최근에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당류를 줄인 딸기잼, 스틱 형태 딸기잼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했다.

오뚜기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당류를 줄인 제품 출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과육 본연의 맛은 살리고 당 함량은 낮춘 ‘라이트 슈가 딸기잼’을 선보였다.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 대비 당 함량을 30% 줄였으

며, 딸기 특산지인 충청남도 논산에서 수확한 딸기를 사용해 새콤달콤한 풍미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2022년 9월에는 기존 ‘아임스틱 딸기잼’을 ‘아임스틱 가변당 딸기잼’으로 리뉴얼 출시했다. 소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개별 날개 포장에 적용한 1회용 스틱잼으로, 리뉴얼을 통해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 대비 당 함량을 25% 낮췄다. 스틱 1개(20g)당 식빵 1장에 딱 맞는 양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내용물을 덜어낼 스푼이나 나이프가 필요한 기존 제품과는 달리 취식과 보관이 간편해 캠핑, 여행 등 야외활동에서도 활용하기 좋다.

/신원선 기자

에이피알, 자사몰 강화로 ‘글로벌 공략’

누적 가입자 수 620만명 돌파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온라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고도화한다.

에이피알은 올해 2월 기준 브랜드별 자사몰 누적 가입자 수가 620만 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메디큐브, 널디, 에이프릴스킨, 포맨트, 글램다바이오 등 총 5개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자사몰 누적 가입자 수를 더한 것이다.

에이피알은 현재 국내를 비롯해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방문자 수와 판매량 또한 증가해 에이피알은 자사몰이 단순 온라인 상점에서 브랜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에이피알 산하 브랜드의 글로벌 자사몰 총 누적 페이지 조회수는 4700만을 넘었다. 특히 에이피알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의 경우 미국 자사몰 누적 페이지 조회수는 660만을 기록했다.

이밖에 일본,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온라인 트래픽 유입이 발생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지금까지 자사몰에서 제품을 우선 출시하거나 한정 판매를 진행하는 등 자사몰 중심 정책을 펼쳐 왔다. 충성 고객을 위한 브랜드별 전용 혜택도 제공한다. 다양한 이커머스 채널에 입점하는 판매 채널 다변화 전략과 차별화한 것이다.

에이피알은 향후에도 단순 구매 경험 이상의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 플랫폼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롯데칠성 ‘매실향’ 담은 칠성사이다 제로 그린플럼

롯데칠성음료가 ‘칠성사이다 제로’에 매실 향을 담았다.

롯데칠성음료는 14일 롯데칠성음료 공식 직영몰 ‘칠성몰’에서 칠성사이다 제로 그린플럼 355mL를 선발매하고 무료 배송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후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칠성사이다 제로 그린플럼은 매실 향을 더해 차별화된 맛과 상큼한 청량함이 특징이며 제로 칼로리로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패키지는 매실의 특징을 담은 옐로우 그린 컬러를 적용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대표 탄산음료 ‘칠성사이다’, 제로 칼로리 ‘칠성사이다 제로’, ‘칠성사이다 제로 블루라임’, 매실향 ‘칠성사이다 제로 그린플럼’ 총 4종을 출시했다.

/신원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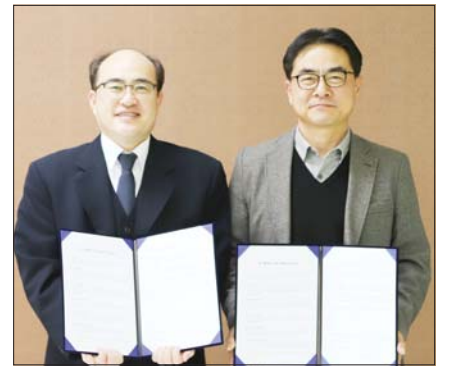
종근당건강, 체지방 감소 적응증 연구 나서

엔테로바이옴과 개발·판매 계약

종근당건강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에 나섰다. 종근당건강은 지난 6일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엔테로바이옴과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소재의 체지방 감소 적응증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및 제품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EB-AMDK19’ 균주의 체지방 감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엔테로바이옴은 원말의 생산과 공급을 맡고 종근당건강은 개발된 제품의 국내 유통과 마케팅을 전담한다.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EB-AMDK19’는 성인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등 체지방 감소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균주다. 비만 유도 마우스에서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체지방 감소 효과를 보였



지난 6일 엔테로바이옴 본사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소재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MOU 체결식’에서 김병용 종근당건강 연구소장(왼쪽)과 서재구 엔테로바이옴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종근당건강

다. 비만 비글견 모델에서는 12주 투여 후 체중 증가를 비롯해 체지방 축적 및 혈중 중성지방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확인됐다.

종근당건강은 이러한 유효성을 바탕으로 현재 식약처 개별인정형 등록을 위해 4개 기관에서 100여명 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나라셀라 “복지포인트 결제·할인 받아요”

웰페어클럽과 제휴 맺어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가 복지카드 우대가맹점 서비스인 웰페어클럽과 제휴를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웰페어클럽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임직원 등 260만명 이상의 회원이 이용하는 멤버십 서비스로,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번 제휴를 통해 웰페어클럽 회원들은 나라셀라가 운영하는 와인 아울렛

와인픽스(10개 지점)와 프리미엄 와인샵 와인타임(3개 지점) 전 지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 금액의 3% 청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나라셀라 영업마케팅 총괄 마기환 전무는 “이번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나 쉽게 찾아와서 와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와인에 대한 접근성과 문화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2023 CDP 코리아 어워드

현대차·기아, 최고 탄소경영 성과... “지속가능 미래 기여”

‘아너스 클럽·섹터 아너스’ 수상 ‘2045 탄소중립’ 전략 등 고평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세계적인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로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14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3 CDP 코리아 어워드’에서 각각 기후변화 대응 부문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과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기관



현대차 경영전략3실장 황동철 상무(왼쪽), 기아 안전환경지원팀 임기동 팀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3 CDP 코리아 어워드(CDP Korea Award)’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 하나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차는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해 상위 5개 기업에게 수여되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 기아는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리더십 A-’를 획득해 해당 산업 섹터(선택소비재) 상위 2~4개 기업에게 수여되는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5년 연속 수상했다.

현대차는 평가 과정에서 ▲2045 탄소중립 전략 추진 ▲전동화 라인업 지속 확대 ▲협력사 탄소중립 유도 ▲사업장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기술 및 자원 기반 탄소상쇄 사업 발굴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탄소경영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아는 ▲2045 탄소중립 전략 추진

▲ RE100 가입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저탄소 친환경 제조공정 적용 ▲엄격한 방류수 수질 관리 및 폐수 재활용 확대 ▲실시간 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 차원의 경영 활동을 인정받았다.

현대차 경영전략3실장 황동철 상무는 “앞으로도 원료의 채취부터 제품 폐기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중립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아 안전환경센터장 조정형 상무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자원 순환을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우리은행, BIZ프라임센터 추가 개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대구·경북, 울산, 호남 등 3개 지역에 중소기업 특화 채널 BIZ프라임센터 추가 개설했다고 밝혔다. BIZ프라임센터는 지난해 7월 조병규 은행장이 취임과 동시에 ‘기업금융 명가’ 재건 전략을 담아 신설한 중소기업 특화 채널이다. /우리은행



한미약품, ‘한미수필문학상’ 시상

한미약품은 지난 9일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한미약품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제23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한미약품은 정진형 전공의 등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대상은 ‘미워도 다시 한번’을 쓴 정진형 고려대안병원 내과 전공의가 받았다. /한미약품



CJ웰케어, 웰니스 문화 확산 앞장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웰케어는 지난 13일 CJ웰케어 본사에서 콜롬비아 대표단과 만나 글로벌 웰니스 문화 확산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왼쪽부터)박성선 CJ웰케어 대표가 알레한드로 펠라에스 주한 콜롬비아 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웰케어



애경케미칼, 사업장 소재 지역 환경정화

애경케미칼이 따스한 3월을 맞아 전 사업장 소재 지역의 환경정화활동에 돌입한다. 14일 애경케미칼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본사와 청양공장, 대전연구소에서 ‘산 따라 줍기’ 활동을 전개했다. 오는 15일 울산공장, 29일 전주공장에서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경케미칼

한화,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산업재 부문 ‘리더십 레벨 A-’ 에너지 설비교체 등 탄소 저감활동

한화가 2023년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14일 한화에 따르면 지난 13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3 CDP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산업재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

한화는 산업재 부문에서 ‘리더십레

벨 A-’ 등급을 획득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화는 204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넷제로 2040(Net Zero 2040)’을 선언하고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와 혁신기술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가스, 국내 에너지기업 유일 ‘리더십 A’

ESG 경영항목 최상위 평가

SK가스가 글로벌 ESG평가기관 인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로부터 ESG 경영을 지속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SK가스가 지난 13일 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CDP 코리아 어워드’에서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SK가스는 기후변화 부문에서 국

내 에너지 기업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하며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리더십 A’는 전 세계 2만 3200여개 참여 기업 중 상위 1.5%가 받는 등급이다. SK가스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 전략과 재무 계획 및 시나리오 분석 ▲배출량 감축 및 저탄소 제품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지배구조 등 전반적인 ESG 관련 경영 항목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홀딩스, ISS ‘퀄리티 스코어’ 1등급

글로벌 평가기관들 ESG 성과 인정

포스코홀딩스가 ISS, 서스테이널리틱스 등 글로벌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ESG 경영성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14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의 ‘퀄리티 스코어’(Quality Score) 평가 결과 ESG 전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다. ISS의 퀄리티 스코어는 매월 전 세계 주요 기업의 ESG 정책과 거버넌스, 정보 공시 내역 등을 평가해 상위 10%에

계 영역별 1등급을 부여한다.

포스코홀딩스는 ESG 채권 심사 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의 ESG 리스크 평가에서 2022년 37.5점으로 위험도 ‘상’(High Risk)을 받았으나 2023년 24.4점·위험도 ‘중’으로 위험도 점수가 개선됐다. 이로 인해 업종별 글로벌 상위 5% 이내 기업에 수여되는 ‘2024 업계 최고 등급’(Industry Top Rated) 배지를 받았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NS로 쌍둥이판다 일상 함께하세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에버랜드의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퇴근 무렵 모습을 14일 SNS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키보드 활선 높은 나무에 올라가려 하거나 사육사 할부지의 장화를 잡고 조르는 듯한 장면, 사육사들의 품에 안겨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담겨 있다.

/삼성물산

SK바사, ‘박만훈상’ 수상자 3인 선정

얀 홈그렌 교수 등 백신개발 공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 세계 연구자들을 지원해 백신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보건 증진에 앞장선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제백신연구소는 백신 업계 노벨상 ‘박만훈상’의 2024년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3회째 열린 ‘박만훈상’은 국내 세포배양 백신의 선구자인 고(故) 박

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이어받아 지난 2021년 신설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가 주최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 명단에는 얀 홈그렌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교수가 단독 수상자로, 바니 그레이엄 미국 모어하우스 의과대학 교수와 제이슨 맥렐란 텍사스주립대 오스틴 캠퍼스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3 | 해질 / 18:39

3월

15일 (금)

음력 : 2월 6일

수도권 날씨

4 ~ 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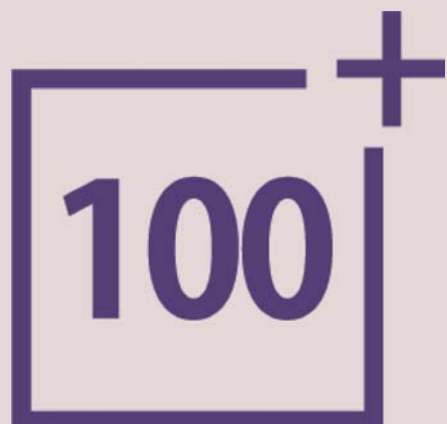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부음

▲장순자씨 별세, 김홍주씨 부인상, 김충식·김형식·김용식·김병수(GM 한국사업장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담당장)·김원희씨 모친상, 홍석창씨 빙부상 = 14일, 울산전 문장례식장 VIP3호, 발인 16일. 052-242-4444

▲최학범씨 별세,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씨 부친상=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20호(14일), 지하2층 17호(15일), 발인 16일.

▲강영기(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씨 별세 =14일, 서울대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02-2072-2010.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1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2024.03.20(수)

14:00~17:10

서울 명동은행회관2층국제회의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칼리지 수료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본부장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14:00 ~ 17:1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등 록: <https://www.metroseoul.co.kr>(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13:30~14:00 VIP Tea타임)
축사	14:00~14: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개회사	14:00~14:20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1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강연1	15:10~15:50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강연2	15:50~16:3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전망과 투자전략
강연3	16:30~17:1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본부장 : 고령화시대, 재테크 전략
폐회	17:10	

반칙의 끝판왕 '위성정당'



차 상 근 의
관망과 혼수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연고 벼락공천' 논란에 이어 비례대표 공천이 세사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원 총정원을 놓고 각 정당이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분배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실시된 제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지역구 선거의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전체의 4분의 1을 비례대표 의원 배정기준으로 삼는다. 제 9대 선거를 제외하고 2000년 16대 선거까지 시행됐다. 이후 정당 득표율에 의원배분 방식이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2004년 17대 선거부터는 지역구 투표 외에 지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1인2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해 선진국식 비례대표제가 정착됐다.

오랜 시간이 걸려 비례대표제 운영의 본질에는 접근했지만 유권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다. 후보 공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필요한데도 그러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엄격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데 그 검증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도 셀프공천, 방탄공천에 체제부정 후보까지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사들이 공천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총선의 큰 틀을 지켜가야 하는 거대 양당이 의원 귀주기, 선거용 기획연합 등을 하면서 위성정당을 급조하는 모습은 차라리 당당해 보인다.

위성정당은 직전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춰 국내에 사실상 처음 생겼다.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결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당시 청와대 출신인사와 여권 인사들이 열린시민당을 만들어 위성정당 논란을 가열시켰다. 이들 정당은 총선 직후 두 모태정당에 흡수됐다. 당연히 거대 정당들은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민주

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위성정당에 대한 국민적 거부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공히 위성정당 금지입법 노력 등으로 이어졌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상대방을 탓하며 당당하게 새로운 위성정당을 만들고 의원 귀주기, 기획연합 등으로 국민 눈속임을 자행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전부를 정략대로 활용하기 위한 반칙의 공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이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나라를 듣도 보도 못했다. 스스로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 수치스런 상황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한술 더떠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이것이 2024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의 수준임을 비정치인들은 알고 있으리라.

/skc8472@metroseoul.co.kr

중국이 중국했네



기지 수첩
최 빛 나
(유통&라이프부)

기업이 미디어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한다는 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드문 일이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하루 전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하게 됐다'는 짧은 공식입장문을 전달한 채 돌연 간담회를 취소했다.

여전히 취소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앞서 취소된 간담회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국에서 세계로'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었다. 한국시장에 알리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빨은 말은 지기겠다"는 당당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여줬다. 한한령 등으로 쓴 맛을 맞본 국내 업계는 중국의 달라진 모습에 알리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중국기업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알리가 내달 부터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입장까지 나오면서 한국 경영에 대한 불신으로 의심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 0%를 전면에 내세웠던 알리에 입점하기 위해 수많은 업체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수익창출을 위해 수수료 부과로 입장을 틀어버린 거 아니냐는 의혹이다.

가품 이슈도 있다. 장 대표가 가품 문제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 많은 가품이슈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법인인 알리코리아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에는 중국 이커머스업계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TF팀은 이른 시일 내 첫 회의를 열고 해외 직구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위해 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 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결 ▲국내 이커머스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외기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내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다른 우려는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만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중국 기업이 한국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이나까' 라는 신뢰가 떨어지는 문장에서 먼저 벗어나야 할 것 같다.

/vitna@

오늘의 운세 3월 15일 (음 2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때로는 아랫사람의 말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48년생 투자에서 이득발생. 60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72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84년생 남편은 권위적이나 신용이 있다.



37년생 밤하늘의 별이 흐려지면 근심이 생기는 것 같다. 49년생 기대를 한 만큼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61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하면 더 피곤. 73년생 물이 깊어와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포용을. 85년생 취직으로 양복을 선사 받음.



38년생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몸이 아프면 집안 정리와 청소를. 50년생 돌이 있어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외로움보다 크다. 62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라. 74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애정이 있어야. 86년생 동쪽문은 막아보라.



39년생 후회 없이 기분 좋은 하루. 51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내게 해가 되어 돌아온다. 63년생 심신이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오는 날. 75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천지에 길이 보인다. 87년생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시밭길 천릿길이다.



40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날. 52년생 길 떠나는데 폭풍을 만나니 비옷과 우산이 필수. 64년생 의외의 조력자가 바로 앞에 있다. 76년생 명예는 높이지만 실속은 없는 속 빈 강정. 88년생 경험 없는 유통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41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이다. 53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니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라. 65년생 오늘은 양보와 봉사기 미덕이다. 77년생 집 나간 강아지를 애타게 찾지 않도록 미리 조심할 것. 89년생 비밀스러운 만남은 조심.



42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54년생 상하 협력이 이익을 준다. 66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 수 있다. 78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90년생 배우자와 불화는 결국 손해 발생.



43년생 나라 밖에서 기분 소식이 온다. 55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니 욕심을 부리지 마라. 67년생 이웃에게 불륜을 조장하지 마라. 79년생 운동도 하면서 폭식하며 먹는 것을 조심하자. 91년생 공연한 조금쯤으로 초조하지 않도록.



44년생 일은 벌어지고 나서 용서가 무슨 소용인가. 56년생 북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따르겠다. 68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 않는다. 80년생 동서남북으로 오늘은 거칠 것이 없겠다. 92년생 재물에 공방이나 돈거래는 나쁘다.



45년생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나간다. 57년생 자신을 알면 피해 가는 길도 있기에 마려워 걱정할 것 없다. 69년생 판단력이 약하니 계약이 있다면 미루도록. 81년생 창업보다는 월급 생활을. 93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우선.



46년생 자녀방문으로 하루가 행복하다. 58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저중자에. 70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영입이익이 주어지는 날. 82년생 급한 행동으로 골절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94년생 시간의 흐름과 온도에 따라 과일은 익어간다.



47년생 인생의 운기는 시간을 적용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다. 59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 71년생 양다리의 만남에 주의. 83년생 어느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자. 95년생 사람은 인정과 베풀음이 늘 존재.



김상희의四季 봄이 오는 소리, 경칩

경칩 지나 필자는 찬바람에 감기를 이주정도 앓았다. 이때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이 겨울잠을 깬데 봄을 세운다는 입춘은 바야흐로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날이요, 경칩의 침(蟄)이라는 한자는 '들어박혀 나오지 않는 것'을 뜻하는 한자이고 경(驚)은 놀라다 또는 놀라게 하다는 뜻이다. 이 무렵에 첫 번째 천둥이 치고 그소리를 들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날 때쯤이면 대동강물도 풀리며 개나리 진달래와 같은 봄꽃들은 꽃망울이 완연해진다. 초목은 물이 오르기 시작하고 얼었던 땅도 녹록해지기 시작하니 동면하던 벌레들도 땅속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농촌에서는 봄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논이나 산에 물이 고인 곳을 찾아다니며 개구리 또는 도롱뇽의 알을 건져다 먹기도 했는데 어디까지나 먹을 것이 귀했던 옛날의 일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채취해 마시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겨우내 응축되었던 땅속의 미네랄을 어찌 알아보고 받아 마실 생각을 했는지 대단하단 생각이 든다. 새로운 생명력은 이처럼 식물과 동물 모두에게 그 상위 먹이 사슬인 우리 인간에게 돌고 도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자연에 무엇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받기만 해서 안 될 일이지 않겠는가? 자에게 보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무릇 한없는 자애를 베풀 것을 얘기한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그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멀리 있거나 이미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자애의 범주가 참으로 한량없다. 절기는 인간만을 위함은 아니리라.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9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4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증가시켰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증가시켰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4 6	7 3
		8	5
8	1		2
4 6			
2			6
			3 9
5		3	2
	9	1	
6 4		7 2	8

3	9 2	8		
	2	1		6
8			1	
7 3	4			
	8		2	
			9	3 4
	6			9
4		7	6	
		6 3 5	8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와인으로 저항한다... 우크라이나 와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우크라이나 출신 테니스 선수 세르게이 스타코브스의 와이너리. 우크라이나 서남부 지역인 자카르파티아주에 위치해 있다.



폭격으로 훼손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중 하나인 프린스 트루베츠크 와이너리. /와인스펙티이터

세르게이 스타코브스키 선수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까. 우크라이나 출신의 테니스 선수인데 세계 랭킹 31위까지도 올랐던 이다. 유명세를 탄 것은 2013년 윈블던 챔피언십에서다. 2회전에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를 꺾었던 것은 지금까지 테니스계의 가장 큰 이변 중 하나로 남아있다.

테니스 코트에서의 모습을 모르는 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뉴스에서 이름을 접할 수도 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조국의 전쟁을 위해 참전했기 때문이다.

사실 은퇴 이후 그의 꿈은 와인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은퇴에 앞서 2018년 빈티지로 스타코프스키 와인을 내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2022년 1월 은퇴를 선언하고 와이너리에 본격 몸을 담기도 전에 2월에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그는 최전선으로 향하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국가대표로 뛰었고, 올림픽에서 우리를 위해 계양되는 국기를 보았다. 싸워야 했다.”

스타코프스키의 선택은 총을 잡는 것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와이너리들 역시 그들만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내고 있었다. 와인을 국제 대사로 내세운 것. 러시아 침공 이후에만 35개의 새로운 와이너리가 조성됐고, 전국적으로 160명 가량의 와인 생산자가 생겨났다.

우크라이나 와인의 역사는 2800년 전까지 거

슬러 올라가지만 소련의 통치 하에서는 발전이 힘들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알코올 중독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면서는 우크라이나 와이너리 역시 상당 부분 철거됐었다.

이번엔 전쟁이 와인업계에 위기가자 기회가 됐다. 128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프린스 트루베츠크 와이너리 등은 폭격으로 훼손됐지만 와인은 그들의 굳건함을 외부에 알리는 훌륭한 도구가 됐고, 이번엔 미국으로의 수출도 성사를 시켰다.

미국 뉴욕의 한 와인 수입업자는 우크라이나와

인을 출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와인 산업은 다양한 때루아와 토착품종의 재발견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와인은 국제 포도 품종인 사르도네와 피노누아는 물론 스페인 품종인 템프라니요와 알바리노, 사페라비, 르카치텔리, 토착품종까지 다양하다.

스타코프스키의 와이너리는 이제 그의 형이 운영하고 있다. 작년엔 전체 와인의 60%를 수출했다. 와인을 실어 나갔던 트럭은 외부 지지단체의 도움을 받아 구호품을 가득 담고 돌아온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전세도 불리하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의 와이너리들은 와인을 계속 만든다.

스타코프스키는 한 군사기지에서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만약 패배하더라도 이 와인들은 우리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포도로 만든 와인을 계속해서 외부로 내보낼 것이고, 와인병에는 여전히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라고 적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의 중요성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이는 드물다. 적어도 한국에선 말이다. 국어사전에는 ‘모르다’의 뜻이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다, 사실을 알지 못하다,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적혀 있다. 사전의 의미와 별개로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 ‘모른다’는 말을 쓴다는 건 자신이 한 발 뒤처졌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사람들은 이 단어의 사용을 극도로 꺼려한다. 강자 앞에 배를 발랑 까뒤집는 개마냥 굴욕적인 처지가 되고 싶은 이는 없기 때문이다.

‘철학 고전 강의’는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책이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걸 전면적으로 의심한다는 건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밑바닥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책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생명체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냥 먹고살기만 하면 된다, 생물학적인 신체가 유지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게 만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고 단언한다.

저자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화학자 프리모 레비의 일화를 들려주며, 나치가 강제 수용소에 가둔 사람들에게 번호를 붙인 이유는 탈인격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절멸수용소에 들어온 포로들 중 인격이 빠져나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죽어버렸고, 언제 죽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 계획을 세우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삶을 가꾸어나간 이들만 끝까지 버



철학 고전 강의
강유원 지음/라티오

살아남았다고.

저자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삶에, 자신이 아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면서 “그런 까닭에 자신이 지금까지 틀림없이 알고 있다고 여기던 걸 부인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결심하는 건 자신의 삶과 삶에 의미를 다시 부여하겠다고 결심하는 일과 마찬가지로”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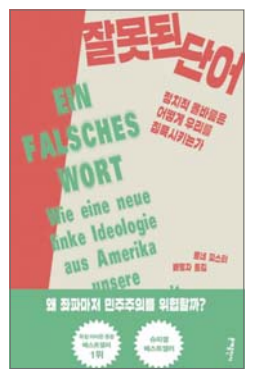
이어 “무지의 지, 자신이 무지의 상태임을 자각하는 건 자신의 전 존재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다. 존재 자체의 위협에 처하는 것”이라며 “대상 세계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는 존재 자체를 총체적으로 뒤트는 상태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460쪽. 2만7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잘못된 단어

독일 진보 잡지 ‘슈피겔’의 워싱턴 특파원 저지는 정치적 올바름을 주창하는 ‘깨어 있는’ 급진적 소수가 미국 사회를 위협에 빠뜨렸다고 진단한다. 책은 정치적 올바름에 어긋나는 ‘잘못된 단어’를 공격하는 일에 사활을 거는 ‘새로운 독단주의’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며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해 공격받는 대신 입을 다물었다고 설명한다.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

들은 침묵하는 대중의 분노를 파고들었고, 미국은 두 개의 우주로 쪼개졌다. 한쪽에선 정치적 올바름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 인적어 공격하고, 다른 쪽에선 사회적 약자를 마음껏 조롱하는 데까지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 나갔다. 저지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단어’의 논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진보 정치의 영역은 점차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32쪽. 1만7000원.



르네 피스터 지음/배경자 옮김/문예출판사

뇌의 흑역사

절단을 향한 욕구로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다가 결국 손 전체를 잘라낸 칼, 담배재를 먹고 싶은 욕망을 꿀 수 없었던 엘리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에펠탑과 결혼하고 이름까지 바꾼 에리카 에펠... 기묘묘한 영화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모두 실화다. 이들은 외상·중양·감염 등으로 뇌에 손상을 입고 하루아침에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180도 바뀌어버

린 사람들이다. 그간 정신의학은 환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즉, 양자택일식 접근법을 취해 왔다. 최근 학계에선 어떤 유형의 행동이든 인간 성향의 범위에 속하며 한쪽 끝은 행동의 과잉을, 반대쪽은 결핍을 나타낸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가 정상성이라고 믿어온 것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책.

324쪽. 1만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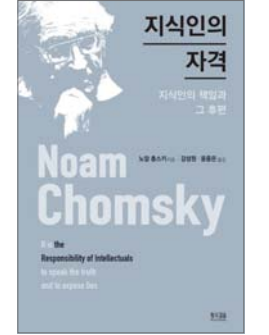
마크 딘턴 지음/이은정 옮김/부키

지식인의 자격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prophet)’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반체제 인사에 해당한다. 당대 지식인들이었던 선지자들은 지정학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권력층의 범죄를 비난했으며,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기득권층을 머리끝까지 화나게 했

다. ‘지식인의 자격’은 지식인의 위선을 고발한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의 에세이를 묶은 책이다. 베트남전쟁 비극을 배경으로 체제 순응적 지식인이 권력과 확립된 제도에 종사하는 모습을 비판해온 촘스키는 9·11 테러 이후 사회 기득권층을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올린다.

184쪽. 1만8000원.



노암 촘스키 지음/강성원, 윤종은 옮김/형소결음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미국, 홍해 문제로 이란과 간접 비밀 협상... 후티 압박 설득”
▲日, 후쿠시마 원전 폐로 새 공법 제안... “핵연료 찌꺼기 굳혀 배출” /사진 뉴시스

▲“北강제노동 투입 中수산물 수입 금지” 美기구 공개서한
▲체코,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일정 공식화... “6월 전장에 도달”



▲푸틴, 대선 D-1 투표 참여 독려... “조국의 미래 결정하는 건 국민뿐”
▲美재무부, 하마스 암호화폐 사용 조사... 2170억원 거래 의혹 /사진 뉴시스

자연품은 우리집서 '힐링'... 정원같은 마당 거닐어 볼까



아파트의 미학(美學)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계양천·노을공원서 누리는 '여가생활' 쾌적한 환경위해 주차장 전체 지하화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적용 미세먼지 저감에 '스마트 클린&케어' '모험·협동 쑥쑥!' 테마 놀이터·텃밭

최근 찾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지난달 입주 시작 아파트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 걸렸다. 검단연장선(2025년 예정)이 완공되면 도보로 15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바로 옆에는 인천아라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계양천, 아라노을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검단신도시 AA6BL블록에 위치한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3개 동, 총 822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가구 타입은 전용 면적별로 ▲59㎡A 554가구 ▲59㎡B 130가구 ▲59㎡C 135가구 ▲59㎡P1 1가구 ▲59㎡P2 2가구다.

아파트 정문에는 오렌지색 구름 모양의 'e편한세상' 로고를 부각시켜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는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했다. 단지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한 것이 눈에 띄었다.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입주민을 위해 e편한세상만의 역량이 집중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를 적용했다. C2 하우스는 소비자 니즈 분석을 통해 개발된 맞춤형 주거 평면

이다.

단지에는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적용됐다. 실내의 통합 공기질 센서가 설치돼 입주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24시간 공기 청정형 환기 시스템이 작동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단지 인근에 인천서구 영아마을, 에더블 국제학교가 위치해 있다"면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2025년 예정) 신설로 법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단지 곳곳에는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특히, 1441동 앞에 설치된 수변공간에는 수생 비오톱이 조성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해당 공간에는 '그린카페'도 위치해 있어 입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단지에는 탐 모양의 조형물과 정원이 설치돼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림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정원 주변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놓여 있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

을 위한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룸, 실내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카페, 작은도서관, 키즈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단지에는 차일드케어센터가 자리 잡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센터 옆에는 정글 탐험을 모티브로 한 유아 놀이터 '협동 쑥쑥! 왕일드 정글 탐험'과 직접 작물을 키워볼 수 있는 텃밭이 설치됐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웃을 수 있게 오두막을 모티브로 만든 '탐구 쑥쑥! 숲속의 거대 그루터기'와 공룡을 연상시키는 '모험 쑥쑥! 다이내믹 쥬라기 월드' 등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감성 지수를 길러 줄 것으로 예상된다.

①, ③ 단지 내 조경 모습. ② 아라노을공원. ④ 수변공간. ⑤ 휴식공간. ⑥ 모험 쑥쑥! 다이내믹 쥬라기 월드·테마놀이터.



‘제임슨 마당’ 팝업
논스카치 위스키 퓌너
니



Life

현대차·기아
탄소경영 성과
L2



도넛, 커피로 ‘풍당’ 환상적 페어링이 만든 행복한 맛에 빠지다

‘커피 앤 도넛’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곳, 바로 국내 최대 도넛 브랜드 ‘던킨’이다. 던킨은 브랜드명 자체도 ‘도넛을 커피에 담아서 찍어 먹는다’는 의미의 ‘던크 인(Dunk-in)’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커피와 도넛의 페어링에 진심인 브랜드다.

올해 국내 출범 30주년을 맞이한 던킨은 국내 진출 초반부터 커피 앤 도넛이라는 카피라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커피와 도넛을 함께 즐기길 좋은 브랜드로 각인됐다. 이러한 명맥을 이어가고자 던킨은 최근에도 커피와 도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던킨 콤보’를 선보였다.

던킨 콤보는 던킨의 대표 제품인 ‘페이머스 글레이즈드’ 도넛과 ‘아메리카노(S)’로 구성된 세트 메뉴로 커피와 도넛을 함께 즐기도록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탄생했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던킨 ‘커피 앤 도넛’

1950년 미국서 시작한 커피·도넛 브랜드 도넛에 커피 찍어먹는 ‘던크인’에서 유래 기본에 충실한 ‘페이머스 글레이즈드’ 인기

◆던킨의 클래식 ‘페이머스 글레이즈드’

페이머스 글레이즈드는 연간 29억 개에 달하는 히트상품이다. 던킨 도넛의 전 세계 판매량 중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국내에서도 단일 메뉴 누적 판매량 약 6억 개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제품을 일렬로 세워놓은 길로 환산하면 약 5만7000km로, 지구 한 바퀴 반 정도에 달하는 길이이다.

제품 출시 초기에는 던킨 글레이즈드로 불렸지만, 글레이즈드 도넛의 인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스테디셀러로서의 입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 2020년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넛’이라는 의미의 페이머스 글레이즈드로 제품명을 변경했다. 당시 제품명 변경과 함께 생산공정 전 과정에서 품질을 개선해 맛과 식감을 더욱 향상시켰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의 링 모양으로 도넛의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다. 또한 다양한 변수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 2020년엔 페이머스 글레이즈드 도넛에 베이컨과 에그 후라이, 치즈를 넣은 샌드위치 콘셉트의 ‘베이컨 에그 샌드’를 선보인 바 있으며, 최근 할매니얼 열풍의 선봉에 있는 던킨의 ‘허니 글레이즈드 약과’는 페이머스 글레이즈드의 모양을 적용해 출시했다.

던킨 커피와 완벽한 페어링을 자랑하며 커피를 곁들였을 때 더 맛있는 도넛으로 손꼽히며, ‘던킨 콤보’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던킨만의 차별화된 커피

던킨이 ‘커피 앤 도넛’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도넛과 환상적인 페어링을 이루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던킨은 첫 원두 ‘던킨 에스프레소 블렌드’에 이어 ‘젤시 바이브’, ‘브루클린 가든’, ‘센트럴 파크’ 등 세컨드 블렌드를 꾸준히 선보이며 커피 품질 강화와 다양성 확보에 집중했다. 이어 2023년에는 세분화된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던킨만의 스페셜 블렌드 커피 ‘리브레 스페셜티’와 신규 세컨드 블렌드 커피 ‘필드위드러브’를 출시하며 던킨만의 차별화된 커피를 지속 선보이고 있다.

최근 출시한 세컨드 블렌드 ‘필드위드러브’는 던킨의 대표 도넛 중 하나인 ‘스트로베리 필드’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커피로 향이 풍부한 브라질, 뛰어난 바디감의 과테말라, 부드러운 깔끔함이 특징인 에티오피아 생두를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해 브라운 슈가의 단맛과 건과일류의 은은한 풍미가 특징이다.

더불어 풍부한 향, 깔끔한 끝맛과 함께 미디엄 다크 로스팅으로 구현한 묵직한 바디감, 균형 잡힌 고소함과 씹쓸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도넛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던킨은 최상의 커피 제공을 위해 지난 2009년 약 60억원을 투자해 음성 로스팅 공장을 준공했다. 전 공정 자동화를 갖춘 1983㎡(600평) 규모의 음성 로스



던킨 동탄상보르점타워뷰 전경

/던킨

팅 공장은 연간 약 8000만 잔의 커피에 해당하는 1200톤의 원두를 로스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스키피 로스터로 갖 볶은 원두를 15일 이내에 전국 던킨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차별화된 커피로 도넛과 환상적 조합 새로운 경험 위한 ‘뉴웨이브 프로젝트’ 고품질 제품 개발, 배송시스템 도입 등 ‘고메도넛’ 맛볼 수 있는 특화매장 운영

◆국내 출범 30주년, 더 맛있게 진화한다

던킨은 1950년 미국에서 시작된 커피·도넛 전문 브랜드다. 국내에는 비알코리아를 통해 소개됐으며, 올해로 국내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1994년 던킨 이태원 1호점을 개점하며 도넛 사업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던킨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배스킨라빈스와 콤보 매장으로 운영됐지만, 1998년 12월 명동점 오픈을 기점으로 당시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이자 만남의 장소로 강하게 인식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 현재는 690여 개에 달하는 매장을 운영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도넛 브랜드로 떠올랐다.

던킨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에게 더욱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뉴웨이브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던킨의 신규 브랜드 콘셉트 ‘뉴웨이브 프로젝트’는 고품질 제품 개발과 함께 신규 인테리어와 배송 시스템 등을 도입해 고객에게 색다른 ‘미식 일상’을 선사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를 통해 ‘뉴 던킨’ 콘셉트를 적용한 특화 매장에서는 전형적인 도넛에서 벗어나 맛과 함께 시각적인 만족감까지 느낄 수 있는 ‘고메도넛’을 맛볼 수 있다.

던킨의 신규 콘셉트가 적용된 매장들은 하루 평균 매출액이 기존 매장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뤘다. 선릉역점은 오픈 후 일주일 동안 누적 방문객 5000명을 기록했으며, 가맹점 최초로 ‘뉴 던킨’ 콘셉트가 적용된 ‘송파사거리점’은 오픈 후 보름 만에 매출액이 목표치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던킨은 신규 콘셉트가 적용된 매장을 통해 새롭고 맛있게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던킨만의 차별화된 행보를 지속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두산 이승엽 감독 “올해 타선만 받쳐 주면 해볼만하다” /사진 뉴시스
▲‘팔꿈치 가격’ 강원 강투지, 2경기 출장 정지 사후 징계

▲샌디에이고, 서울행 직전 트레이드 합의…투수 시즈 영입
▲메츠 최치만, MLB 시범경기 2경기 연속 침묵…타율 0.263



▲이강인, 2경기 연속 풀타임…PSG, 니스 꺾고 4강 진출
▲아틀레티코, 승부차기 끝에 인테르 누르고 UCL 8강행 /사진 뉴시스